

2007년 경제전망

-북핵실험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

2006. 10.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구위원	배 상 근
연구위원	안 순 권
연구위원	정 연 호
연구위원	송 원 근
선임연구위원	김 창 배

< 제 목 차 례 >

요약	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3
2. 물가 및 임금	16
3. 노동시장	20
4. 금융시장	22
5. 외환시장	34
6. 해외경제	37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42
제 II 장 2007년 경제전망	43
1. 대내외 여건	45
2. 북한 핵실험 이후의 예상되는 시나리오	48
3. 국내경제전망	51
4. 정책대안	59
<참고자료 1>	62
<참고자료 2>	63
<참고자료 3>	64
<참고자료 4>	67
<참고자료 5>	70
<참고자료 6>	71
<참고자료 7>	75
<부록> 주요 경제지표	77

< 표 차례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5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7
<표 I-4> 소비	8
<표 I-5> 투자	10
<표 I-6> 품목별 수출	12
<표 I-7> 지역별 수출	13
<표 I-8> 용도별 수입	14
<표 I-9> 최근 경상수지	15
<표 I-10> 물가 추이	17
<표 I-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19
<표 I-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19
<표 I-13> 취업자 추이	20
<표 I-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1
<표 I-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22
<표 I-16> 주요 금리 현황	25
<표 I-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26
<표 I-18> 기업자금조달 추이	28
<표 I-19>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28
<표 I-20> 은행의 가계대출	29
<표 I-21> 금융기관 수신고	30
<표 I-22>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	31
<표 I-23>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	32
<표 I-24> 주식시장 주요지표	33
<표 I-25> 원/달러 환율	34
<표 I-26> 자본 유출입 추이	36
<표 I-27> 미국의 경제지표	37

〈표 I -28〉 일본의 경제지표	38
〈표 I -29〉 EU의 주요 경제지표	39
〈표 I -3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0
〈표 I -31〉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41
〈표 II -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45
〈표 II -2〉 2007년 국내경제전망(기본 시나리오 전망)	54
〈표 II -3〉 시나리오별 2007년 경제전망 비교	57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	6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	8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	10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12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	14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17
<그림 I-8>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18
<그림 I-9> 시장금리 추이	23
<그림 I-10> 장단기 금리차 추이	24
<그림 I-11> 신용스프레드 추이	25
<그림 I-12> 주가지수 추이	33
<그림 I-13> 주요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35
<그림 I-14>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42
<그림 II-1> 북핵 관련 시나리오 흐름도	50
<그림 II-2> 기본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 흐름도	52
<그림 II-3> 상황악화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 흐름도.....	55

I. 최근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3분기 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 연율)이 2분기에 이어 3%대에 그침.

- 전기비 연율: 4.9%('06 1분기) → 3.4%(2분기) → 3.7%(3분기)
 -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에 기인(1분기 5.2% → 2분기 3.7% → 3분기 1.9%)
 - 2분기와 3분기 증가율을 평균해 볼 때, 수출호조는 지속

■ 제조업 생산호조, 서비스업 활동 부진

- 제조업 생산은 올 3분기 중 10.9% 증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분기(80.5%)에 이어 3분기에도 80%대 수준 지속
-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은 1분기 6.1%, 2분기 5.3%, 7~8월 중 3.2%로 둔화

■ 소비증가세 둔화 지속

-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소비증가세가 점차 둔화
 - 도소매판매: 4.3%('05년 하반기) → 3.8%('06년 상반기) → 4.1%(3분기)
 - 소비재판매: 5.6%('05년 하반기) → 5.2%('06년 상반기) → 2.1%(3분기)

■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 증가율이 지난해 3.3%에서 올 상반기에는 4.5%, 3분기 중에는 9.8%로 상승

■ 건설투자, 비교적 높은 증가세

- 3분기 중 국내건설기성(경상)은 수해복구 등의 영향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이 일반

토목공사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6.3% 증가

- 6.9%('05년 4분기) → 5.9%('06년 1분기) → 1.4%(2분기) → 6.3%(3분기)

■ 수출호조세 유지

- 3분기 수출증가율은 16.6%로 2분기(16.9%)에 이어 호조세를 유지하였고 특히 9월에는 21.3%로 8월의 17.6%보다 상승
 - 반도체, 자동차는 호조세, 반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는 부진 지속

■ 수입은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높은 증기율 지속

- 수입(통관기준)은 상반기 19.4% 증가한 데 이어 3분기에도 21.4% 증가

■ 3분기 중 경상수지, 소폭 흑자로 전환

- 상반기 4.3억 달러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가 3분기 중에는 약 3.4억 달러흑자로 전환됨.
 - 지난해 3분기(26.5억 달러 흑자)에 비하면 약 23억 달러 악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폭 상승

-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분기(2.3%)에 비해 0.2%p 상승
 - 집세,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중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폭염과 장마로 인한 농축수산물가격이 상승한 데 기인

■ 생산자물가, 오름세 확대

- 생산자물가: 1.5%('05년 4분기) → 1.7%('06년 1분기) → 2.4%(2분기) → 3.1%(3분기)

■ 고용,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5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듯

- 금년 9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28.2만 명 증가하여 1~9월 평균 취업자가 30.0만 명에 불과한 상황
 - 연령계층별로는 15~29세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0~49세 취업자 증가는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50세 이상의 취업자가 전체 일자리 창출 주도

■ 실업률은 안정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9월 중 실업자는 76.6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0%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작년 9월에 비해 0.4%p 하락한 3.2% 시현
 - 하지만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0.1%p 높은 7.3%를 기록했고 50~59세 실업자(-34.0%)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여기에 9월 비경제활동인구도 1,475.8만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6%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시장금리, 7월 이후의 하향안정세를 지속

- 7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금리는 10월 들어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콜금리 목표 동결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다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이후 안전자산 수요 증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국고채 조기 환매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950~960원 박스권 내에서 등락

- 미국의 금리인상 동결 및 경상적자 확대 등 글로벌 달러약세(원화강세)요인에다 국내 경기둔화,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증시자금의 이탈 등 원화약세요인 등이 외환 시장에 동시에 작용
 - 북한의 핵실험으로 10월 9일 환율이 급등(949.1원→963.9원)했으나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시장은 빠르게 안정

2. 해외경제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

- 실질GDP성장률 둔화: 1분기 5.6%, 2분기 2.6%
 -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 2분기 6.6%, 3분기 3.6%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0.4%에 이어 8월에도 0.2% 상승

■ 일본 경기회복세 지속

- 2분기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3분기에는 회복
 - 수출이 7~8월 중 높은 증가세 지속
 - 7~8월 중 광공업 생산이 5~6%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EU 경제, 점진적 회복세

- 2사분기 이후 산업생산 증가, 경기체감지수 개선 등
 - 산업생산은 6~7월의 정체상태를 벗어나 8월 1.8% 증가
 -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ESI)가 꾸준한 상승세 지속

■ 중국경제, 고성장세 지속

- 고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 지속
 - 1~8월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9.1%로 높은 수준 지속
 - 통화(M2)증가율은 2분기 18.8%에 이어 7~8월에도 17~8%의 증가세 유지
 - 산업생산은 2분기 18.0%에 이어 7~8월 중에도 16%대 지속

■ 국제유가, 9월 국제유가 급락

- 중동정정 안정으로 수급차질 우려 완화 및 세계경기 둔화 예상에 따른 수요 약세로

9월 이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락

- 두바이유: 8월말 68.85달러에서 9월 30일에는 59.93달러로 하락
- CRB 선물가격지수도 8월말 390.95에서 9월말 370.10으로 하락

3.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 경기둔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당초 기대에 비해 내수회복세가 미흡하여 경기가 정점을 이미 지나 완만하게 둔화
 - 향후 경기국면의 변화를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도 금년 2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7개월 연속 하락세 시현

Ⅱ. 2007년 경제전망

1. 2007년 대내외 여건

- ① 주요국 경제: 유가 불안,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성장세 소폭 둔화
 - 미국경제: 주택경기의 하강,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현 정책금리 수준의 유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 중국경제: 내수증가세의 지속으로 고성장 유지
 - 일본경제 및 유로지역 경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율 하락으로 올해보다 성장률 낮아질 전망
- ② 국제유가: 하락, 상승요인 혼재된 가운데 국제유가는 6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유지
 - 하락요인: 수요증가세 둔화 지속 및 OPEC 원유생산 증가 전망
 - 상승요인: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불안 및 유가하락에 따른 OPEC 감산 전망
- ③ 한·미 FTA협상 체결 가능성: 현재까지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에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큼.
 - 한·미 FTA의 체결은 최대 무역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브랜드 및 대외신인도의 상승을 통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 ④ 북핵실험의 부정적 여파, 대선정국 관련하여 적극적 경기부양책 추진
 - 북핵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주가 환율 등 금융변수의 변동성 확대, 자본유출 등으로 경기 위축

- 대선정국과 지속되는 정책혼선으로 사회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이런 요인들에 의한 경기경색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 동원, 규제완화 등 적극적 경기진작책이 예상

2. 북한 핵실험 이후의 예상되는 시나리오

- 기본 시나리오: 남북경협·PSI 참여 관련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불협화음 발생 및 그에 따른 국내 갈등 고조
 - PSI 참여 확대: 현재 미국이 높은 수준의 PSI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양국간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
 -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미국정부 및 제재위원회로부터 중단 요구가 예상되거나 한국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문제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국내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대외신인도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한국정부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즉각적 무력 대응 가능성은 낮은 반면, PSI 참여 확대 시 일촉즉발의 무력대치 상황 발생 가능
- 상황악화 시나리오: 무력대치 상황의 악화나, 북한의 강경대응에 따른 추가 제재 및 해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상태 고조(국지적 무력충돌 포함)
 - 경제제재의 이행 및 PSI 전면 확대에 대해 경제봉쇄로 간주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을 포함해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봉쇄 및 국지적 분쟁의 심화에 이어 극적 협상 타결을 통화 상황 호전이나, 북한체제의 변화 등의 가능성도 있음.

3. 2007년 경제전망

■ 기본 시나리오 전망

- 경제제재가 추진(41조 등)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의 불협화음 발생(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PSI 수준 관련)하는 경우
- 성장둔화: 2006년 4.8% → 2007년 3.8%
 - 전반적인 성장둔화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 북핵변수로 인한 가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의 위축,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대외신인도 하락, 자본유입 감소 등 ⇒ 추가적인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 2006년 2.5% → 2007년 2.9%
 - 지정학적 위험고조가 환율상승을 통해 국내물가의 오름세를 확대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하락: 2006년 5.2% → 2007년 4.7%
 - 경기둔화, 북핵실험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통화완화정책이 예상
- 원화환율 상승: 2006년 961원 → 2007년 972원
 - 경기둔화, 경상수지적자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환율상승요인
 - 북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
- 국제수지 악화
 - 외국인 여행객수 감소, 자본유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제수지가 악화

〈표 1〉 2007년 국내경제전망(기본 시나리오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GDP	4.0	6.1	5.3	4.6	3.6	4.8	3.8
(SA, 전기비 연율%)		4.9	3.4	3.7	2.5		
민간소비	3.2	4.8	4.4	3.9	3.3	4.1	3.3
건설투자	0.4	1.2	-3.9	-1.3	-1.1	-1.5	0.8
소비자물가	2.8	2.3	2.4	2.5	2.6	2.5	2.9
경상수지(억 달러)	165.6	-11.2	6.9	3.4	23.1	22.3	-30.6
상품수지(억 달러)	334.7	52.2	74.1	63.0	73.0	262.4	223.9
수출(억 달러, BOP기준)	2890.0	758.0	821.3	853.5	884.8	3317.6	3642.7
증가율%	12.1	11.4	16.3	18.0	13.5	14.8	9.8
수입(억 달러, BOP기준)	2555.2	705.8	747.1	790.6	811.8	3055.2	3418.8
증가율%	16.4	19.8	20.5	22.0	16.2	19.6	11.9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9.1	-63.4	-67.2	59.6	-49.9	-240.1	-254.5
환율(원/달러, 평균)	1024	976	949	958	960	961	972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5.4	5.2	5.1	4.9	5.2	4.7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 상황악화 시나리오 전망

- 해상봉쇄에 따라 군사적 긴장상태(소규모 무력충돌 포함) 고조되어, 사회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하로 추락하는 경우
- 성장률 급락: 3.8%(기본 전망) → 1.9%(상황악화 전망)
 - 국가신용등급의 급락* 등으로 자본조달비용 상승, 자본이탈 가시화
 - *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단기간 내에 투자적격범위(Moody's는 Baa3, S&P와 Fitch는 BBB- 이상) 이하로 하락한 바 있음
 - 사회불안심리 확산으로 원활한 소비활동이 제한

- 물가급등, 금리상승 등으로 투자부진 심화
- 소비자물가 급등: 2.9%(기본 전망) → 5.2%(상황악화 전망)
 - 환율상승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생필품의 사재기현상 발생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상승: 4.7%(기본 전망) → 5.6%(상황악화 전망)
 - 채권가격 급락,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에 따른 원화환율의 급등을 억제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등
- 원화환율: 972원/달러(기본 전망) → 1048원/달러(상황악화 전망)
 - 불안고조로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과 미국 달러 등 안전통화 사재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
- 국제수지 대폭 악화
 - 국가신용등급의 투자적격 이하로의 하락은 외국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초래하면서 자본수지를 악화시킴.(외환위기 당시 97년 11~12월 두 달 동안 자본수지는 108억 달러 적자)

〈표 2〉 시나리오별 2007년 경제전망 비교

	2007년		
	전망(A)	상황악화 전망(B)	(B)-(A)
GDP(%)	3.8	1.9	-1.9%p
민간소비(%)	3.3	0.9	-2.4%p
건설투자(%)	0.8	-2.5	-3.3%p
설비+무형고정자산(%)	5.7	0.1	-5.6%p
소비자물가(%)	2.9	5.2	2.3%p
수출(국제수지기준, %)	9.8	5.3	-4.5%p
수입(국제수지기준, %)	11.9	4.1	-7.8%p
환율(원/달러, 평균)	972	1048	76원/달러
회사채수익률(3yrs, AA-, %)	4.7	5.6	0.9%p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4. 정책과제

■ 복핵 관련 사태의 전개양상별 비상경제대책(contingency plan) 강구해야

- 향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복핵 관련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단계별 정책 요망

■ 기본 시나리오 상황에 대비한 정책 과제

- 크게 높아진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downside risk)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기지지대책이 필요함
- 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동원하기에 앞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 등의 미시경제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되, 경기급락이 예상되면 거시경제정책도 동반 추진
 - 재정정책: 재정지출 확대에 앞서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복지예산을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부분으로 재배정하며, 상반기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 조세정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특소세 인하 또는 폐지 등을 모색하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서 각종 소득세와 거래세 등의 한시적 인하도 고려해야
 - 통화정책: 위험도 증가에 따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며 대출 중단 등 각종 금융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감독 강화 및 필요 유동성 공급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 경기급락이 예상되면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 외환·환율정책: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제한적인 개입(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안정화 도모
 - 기업·노동정책: 정부는 수도권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해고 자제를 통해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근로자는 노동쟁의를 최대한 자제

■ 상황악화 시나리오 상황에 대비한 정책 과제

-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여 국내 경기가 급격히 경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시스템을 동원할 필요
 - 재정·조세정책: 일정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설 투자사업 등에 배정하고, 한시적인 비과세·감면세 확대 등도 고려
 -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단기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통화가치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외환·환율정책: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외국환거래법 6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1조 등에 의거하여 외국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도 작동
 - 기업·노동정책: 노사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동결, 무해고, 무분규 등을 선언할 필요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및 임금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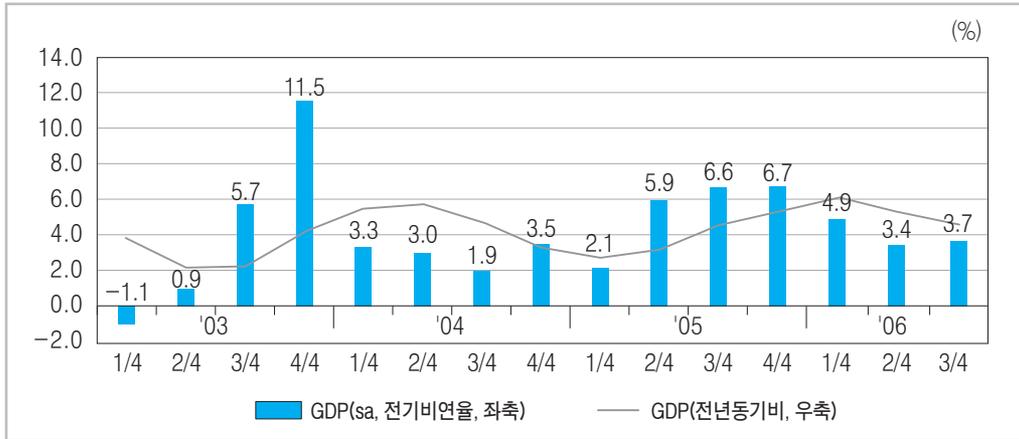
1. 실물경제

(1) 국내총생산

■ 3%대의 저성장 추세 지속

- 3분기 실질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 연율)이 3.7%를 기록, 2분기(3.4%)에 이어 3%대에 그침.
 - 전기비 연율: 6.7%('05년 4분기) → 4.9%('06년 1분기) → 3.4%(2분기) → 3.7%(3분기)
 - 전기비: 1.6%('05년 4분기) → 1.2%('06년 1분기) → 0.8%(2분기) → 0.9%(3분기)
- 부문별로는 설비투자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분기 5.2%, 2분기 3.7%, 3분기 1.9%로 둔화
 - 2분기와 3분기를 평균해 볼 때, 수출은 호조지속, 건설투자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제고되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하락
 - 하지만 내수 중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2분기에 비해 하락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1.9	5.8	4.1	4.6	5.2	3.7	1.9
건설투자	1.8	7.4	-3.3	0.0	2.3	-14.7	9.4
설비투자	9.6	9.9	3.2	17.8	-1.6	10.5	13.1
수출(재화와 서비스)	8.6	5.0	23.1	5.2	13.4	23.5	7.3
수입(재화와 서비스)	-8.7	19.1	16.7	-3.6	19.5	23.3	8.7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p)

	2005년				2006년		
	1/4	2/4	3/4	4/4	1/4	2/4	3/4
내수	2.2	5.2	1.8	4.1	2.8	0.4	3.8
민간소비	1.0	2.9	2.1	2.3	2.6	1.8	1.0
건설투자	0.3	1.2	-0.6	0.0	0.4	-2.3	1.4
설비투자	1.0	1.1	0.4	1.9	-0.2	1.1	1.4
수출(재화와 서비스)	4.5	2.7	12.3	2.9	7.4	13.2	4.3
순수출	12.5	-4.2	5.2	5.4	-1.1	2.4	0.1

(2) 생산

■ 제조업 생산, 호조 지속

- 제조업 생산은 올 3분기 중 10.6% 증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반도체 · 영상 · 음향통신 업종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정보통신업종을 대표하는 ICT제조업지수도 지난해 4분기 이후 20%대의 증가세를 지속
 - 자동차 생산은 9월 중 큰 폭으로 증가(53.2%)하며 파업에 따른 7월 중 생산(-29.1%)차질을 만회, 3분기 전체로는 7.1% 증가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의 부진은 지속되고 경공업 부문도 3분기 중 1.9%에 그침.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분기(80.5%)에 이어 3분기에도 80% 수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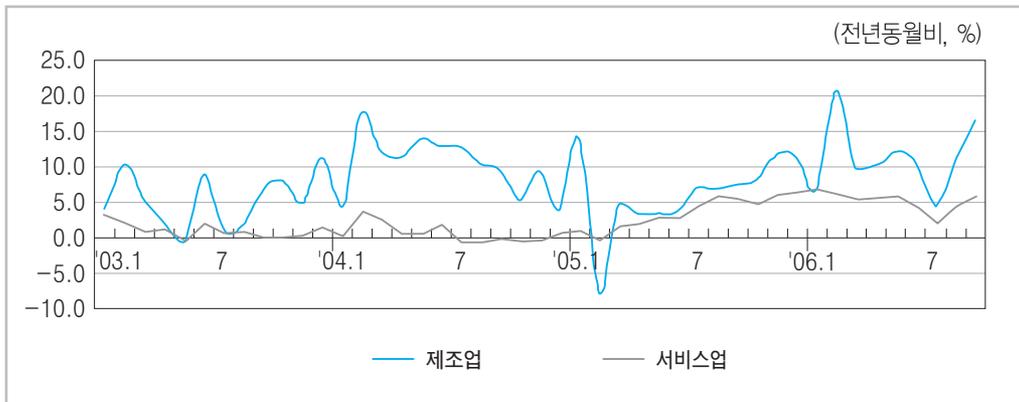
■ 그러나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은 둔화추세 지속

- 서비스업 활동지수(통계청 발표) 증가율은 1분기 6.1%, 2분기 5.3%, 3분기 4.1%로 둔화
 - 월별로는 1월(6.9%)을 고점으로 하락세

— 업종별로는

- 도소매업과 통신업은 여전히 낮은 증가율 지속
- 올 1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증가세 둔화
- 지난해 4분기 이후 회복조짐을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도 다시 부진

<그림 1-2> 생산증가율 추이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제조업 전체	3.3	3.4	7.3	10.4	6.2	12.6	11.4	10.6
중공업	5.6	4.9	9.4	13.1	8.4	14.7	14.0	12.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4.9	-6.6	-11.7	-11.7	-8.6	-17.3	-9.6	7.0
반도체·영상·음향, 통신	13.3	9.4	23.8	32.3	20.1	32.4	32.1	2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7	11.1	2.6	8.8	8.4	15.4	8.4	7.1
경공업	-6.3	-2.9	-1.1	-1.0	-2.8	3.3	0.1	1.9
ICT지수	10.9	7.7	20.1	27.7	16.9	27.4	28.2	21.0
평균가동률	79.6	79.4	79.9	80.2	79.8	82.0	80.5	80.5
서비스업 전체	0.7	2.5	5.4	5.8	3.6	6.1	5.3	4.1
도소매업	-1.3	2.3	3.2	3.4	1.9	3.3	3.7	3.9
숙박 및 음식점업	-1.2	-0.6	-0.1	3.0	0.3	3.9	2.4	2.3
운수업	3.1	3.4	4.8	5.4	4.2	6.4	6.3	5.9
통신업	4.7	4.2	2.7	4.7	4.1	2.3	2.9	3.3
금융 및 보험업	0.4	1.8	13.6	13.9	7.3	13.2	9.3	4.5
부동산 및 임대업	6.6	7.9	10.0	9.2	8.5	10.5	8.4	7.4
사업서비스업	1.8	1.5	2.7	4.7	2.7	5.6	6.2	5.8
교육서비스업	-0.4	0.0	3.1	-0.1	0.7	1.4	2.3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	8.0	9.1	9.4	7.3	11.2	7.6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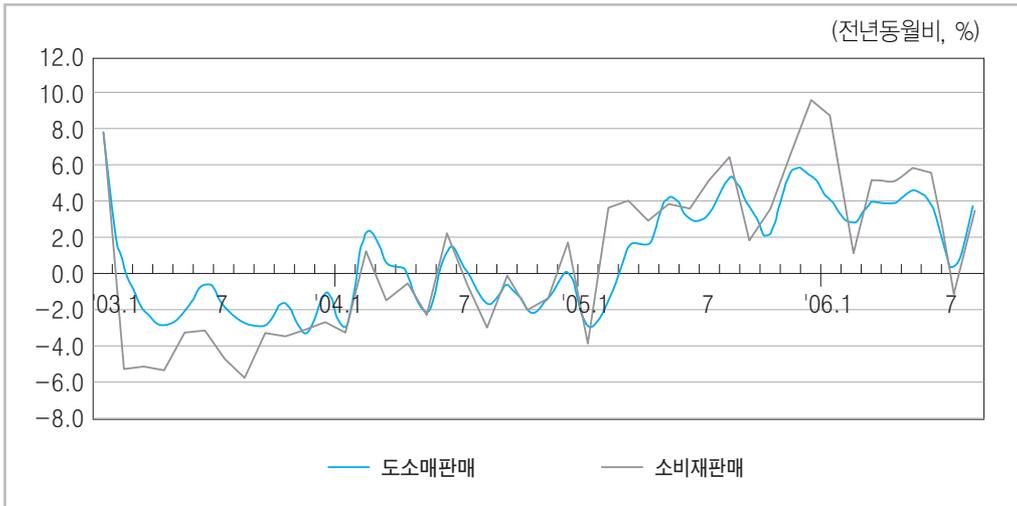
(3) 소비

■ 소비증가세 둔화

-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소비증가세가 점차 둔화
 - 도소매판매: 4.3%('05년 하반기) → 3.8%('06년 상반기) → 4.1%(3분기)
 - 소비재판매: 5.6%('05년 하반기) → 5.2%('06년 상반기) → 2.1%(3분기)

- 소매업태별로는 보면 무점포판매, 대형할인점의 증가세가 유지된 반면 백화점과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은 부진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표 1-4> 소비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도소매판매	-0.8	3.0	4.0	4.5	2.7	3.6	4.1	4.1
소비재판매	1.2	3.4	4.4	6.8	3.9	5.0	5.5	2.1
백화점	-1.3	0.8	3.9	8.2	3.0	7.9	5.6	0.0
대형할인점	6.7	7.7	7.2	11.6	8.3	6.3	9.0	5.5
무점포판매	10.8	9.8	13.2	21.9	14.1	18.6	18.8	18.5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0.8	1.2	-1.0	0.1	-0.1	-3.0	-0.3	-0.9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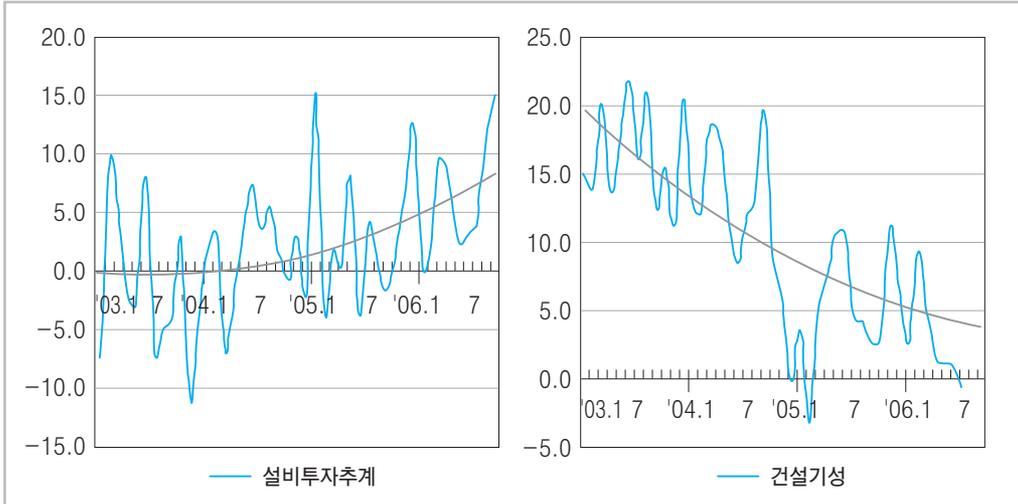
■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 증가율이 지난해 3.3%에서 올 상반기에는 4.5%, 3분기 중에는 9.8%로 상승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경상금액 기준)도 3분기 중 15.6%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
 - 공공부문의 발주는 2분기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민간부문 제조업의 발주가 크게 증가

■ 건설투자, 비교적 높은 증가세

- 3분기 중 국내건설기성(경상)은 수해복구 등의 영향으로 9월 공공 및 민간 건설이 일반토목공사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6.3% 증가
 - 6.9%('05년 4분기) → 5.8%('06년 1분기) → 1.4%(2분기) → 6.3%(3분기)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도 3분기 중에 크게 반등
 - 건설수주는 올 1분기 9.7%감소한 데 이어 2분기 중에도 14.1% 감소했으나 3분기 중에는 36.2% 증가
 - 2사분기까지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자에 관계없이 건설수주 감소
 - 3분기 중에는 공공부문의 발주뿐 아니라 민간 및 민자부문의 주택, 창고, 공장 등의 발주도 증가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표 1-5〉 투자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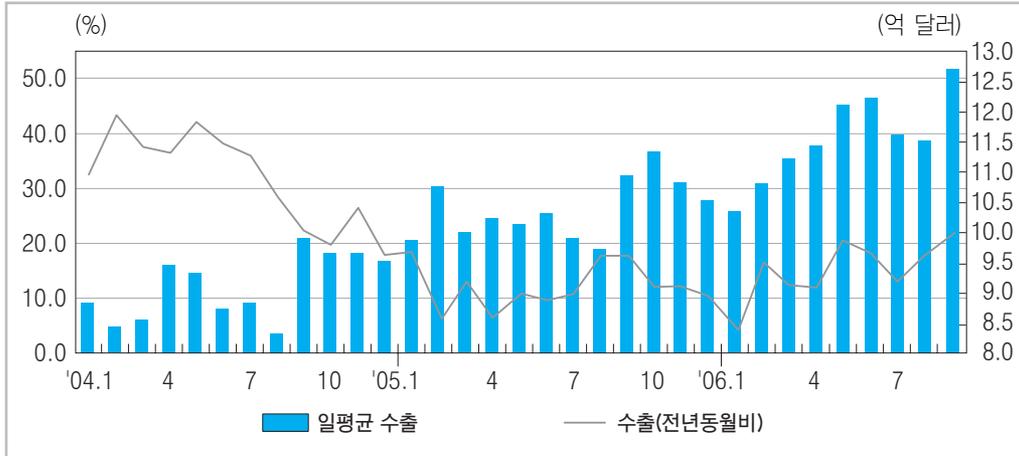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설비투자추계(불변)	3.9	1.5	1.0	7.0	3.3	4.6	4.3	9.8
국내기계수주(경상)	-6.9	-12.2	14.0	17.5	1.5	11.2	20.9	15.6
공공	7.8	-51.3	38.9	17.1	-3.1	-57.9	43.3	16.1
민간	-8.4	-7.1	11.7	17.6	2.0	19.9	19.3	15.5
제조업	-10.3	-6.5	2.7	1.4	-3.8	30.0	26.6	31.2
비제조업	-6.6	-7.6	20.3	35.2	7.7	10.5	12.0	2.8
건설기성액(경상)	1.9	9.6	3.8	6.9	5.7	5.9	1.3	6.3
건설수주(경상)	22.3	38.5	15.8	-17.9	9.5	-9.7	-14.1	36.2
공공부문	22.2	73.7	0.0	-26.3	1.6	-11.3	-28.3	22.3
민간부문	18.3	30.9	29.1	-5.8	16.2	-6.0	-5.6	36.0
민자	151.8	9.3	-84.1	-71.0	-36.3	-64.6	-71.4	504.316

(5) 수출

■ 수출호조세 유지

- 3분기 수출증가율은 16.6%로 2분기(16.9%)에 이어 호조세를 유지하였고 특히 9월에는 21.3%로 8월의 17.6%보다 상승
 - 9월 일평균 수출금액도 12.7억 달러를 기록, 8월(11.5억 달러)보다 상승
- 품목별 수출
 - 반도체는 PC용 수요증가로 인한 D램과 플래시메모리 가격상승 등으로 2사분기 16.3%에 이어 9월에 28.5%의 증가율
 - 자동차는 노사협상 타결에 따른 생산의 정상화로 9월의 수출증가율이 95.4%로 7~8월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여 3분기 전체로는 수출이 15.3% 상승
 - 석유제품은 유가하락 및 정제마진 축소로 수출증가세가 8월의 61.3%에서 9월에는 25.6%로 둔화
 - 무선통신기기는 3세대 이동통신(WCDMA)시장의 성장지연 및 원L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부진
 - 컴퓨터는 저가분야 가격경쟁력 열세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지역별 수출
 - 對ASEAN 수출은 싱가포르에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율이 확대
 - 對일본 수출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빠른 증가세
 - 對중국 수출은 8월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對미국 수출은 증가율이 소폭 둔화
 - 對EU 수출은 자동차 수출의 호조로 7월 감소세에서 8월 이후 빠른 증가세로 반전

<그림 1-5> 최근 수출 추이



<표 1-6> 품목별 수출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9월
수출전체	12.7	9.0	15.4	11.4	12.0	10.6	16.9	16.6	21.3
반도체	20.1	7.7	16.5	9.0	13.1	14.0	16.3	19.6	28.5
자동차	30.2	18.8	-1.6	1.2	11.0	10.7	7.6	15.3	95.4
무선통신기기	13.1	1.9	1.9	3.4	4.9	1.5	-1.9	1.9	2.7
컴퓨터	-25.6	-26.5	-8.7	-6.3	-17.6	-3.9	-15.4	-14.4	-10.9
선박	11.7	5.3	25.4	14.0	13.2	-1.6	49.0	12.4	-21.4
석유제품	30.9	46.9	77.1	44.5	50.6	34.8	54.3	48.8	25.6

〈표 1-7〉 지역별 수출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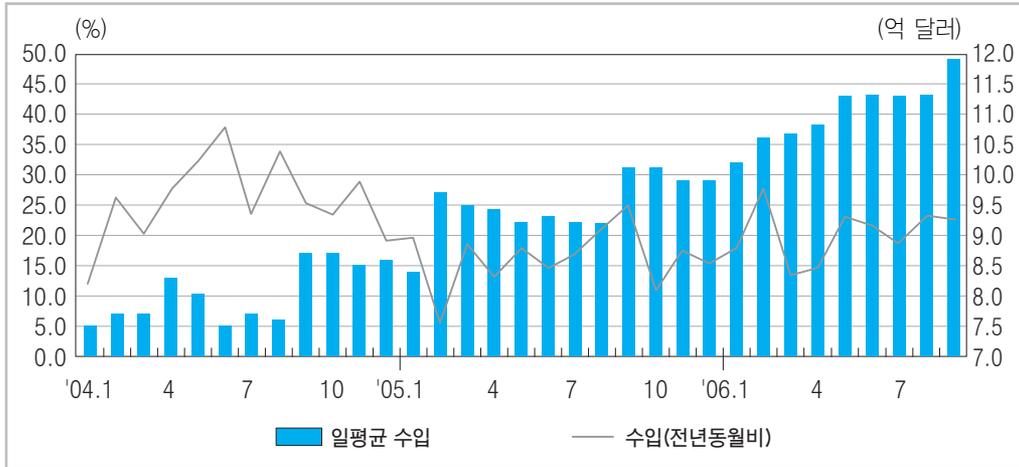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9월
중국	23.6	23.5	27.9	22.6	24.4	12.6	11.4	11.9	15.2
일본	9.5	12.6	14.0	7.3	10.7	11.6	9.5	13.7	16.6
미국	10.7	-12.7	-6.0	-3.8	-3.5	0.1	10.9	9.1	8.4
ASEAN	10.0	14.0	25.0	8.0	14.2	10.3	14.2	17.9	21.1
EU	19.9	12.2	18.9	11.8	15.4	7.4	16.2	13.3	27.1

(6) 수입

■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높은 수입증가율 지속

- 수입(통관기준)은 상반기 19.4% 증가한 데 이어 3분기에도 21.4% 증가
 - 일평균 수입금액 상승: 상반기 10.8억 달러 → 9월 11.9억 달러
- 용도별로도 상반기에 이어 증가세 지속
 - 7~8월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자본재수입과 소비재수입도 9월 들어 다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수입 증가율은 9월의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보임.

<그림 1-6> 최근 수입 추이



<표 1-8> 용도별 수입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9월
수입총액	14.8	15.2	21.1	14.6	16.4	19.0	19.8	21.4	22.6
원자재	19.4	21.0	28.4	15.6	20.9	23.5	23.8	27.3	25.3
자본재	11.3	9.3	13.4	12.9	11.7	11.9	11.8	14.4	19.9
소비재	8.7	12.6	16.2	15.2	13.3	19.2	21.5	20.7	28.9

(7) 경상수지

■ 3분기 중 경상수지, 소폭 흑자로 전환

– 상반기 4.3억 달러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가 3분기 중에는 약 3.4억 달러 흑자로 전환됨.

- 지난해 3분기(26.5억 달러 흑자)에 비하면 약 23억 달러 악화

- 상품수지 흑자의 축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에 기인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는 3분기 중 63.0억 달러로 전년동기(75.8억 달러)에 비해서 약 12.8억 달러 축소
 - 서비스수지 적자는 3분기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43.6억 달러)에 비해 더욱 확대

〈표 1-9〉 최근 경상수지

(억 달러)

	2005년				2006년		
	2/4	3/4	4/4	연간	1/4	2/4	3/4
경상수지	26.0	26.5	54.3	165.6	-11.2	6.9	3.4
상품수지	86.4	75.8	80.9	334.7	52.2	74.1	63.0
서비스수지	-32.4	-43.6	-24.9	-130.9	-50.0	-38.8	-54.9
운수수지	9.2	7.3	11.0	39.2	3.0	5.8	7.4
여행수지	-24.9	-29.2	-22.2	-96.5	-29.5	-28.4	-37.8
금융서비스	3.0	3.8	4.4	14.3	4.4	5.6	3.2
특허권등사용료수지	-5.4	-7.0	-3.4	-25.7	-8.1	-5.6	-7.5
사업서비스수지	-13.7	-19.5	-14.5	-61.5	-15.1	-15.1	-18.5
소득수지	-20.9	0.3	5.0	-13.2	-4.8	-16.5	6.1
경상이전수지	-7.1	-6.0	-6.7	-25.0	-8.1	-11.9	-10.8

2. 물가 및 임금

■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폭 상승

-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분기(2.3%)에 비해 0.2%p 상승
 - 8월 중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 폭염과 장마로 인한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데 기인
 - 집세,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가격 오름세도 지속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의 증가율도 상승
 - 1.6%('06년 1분기) → 1.9%(2분기) → 2.2%(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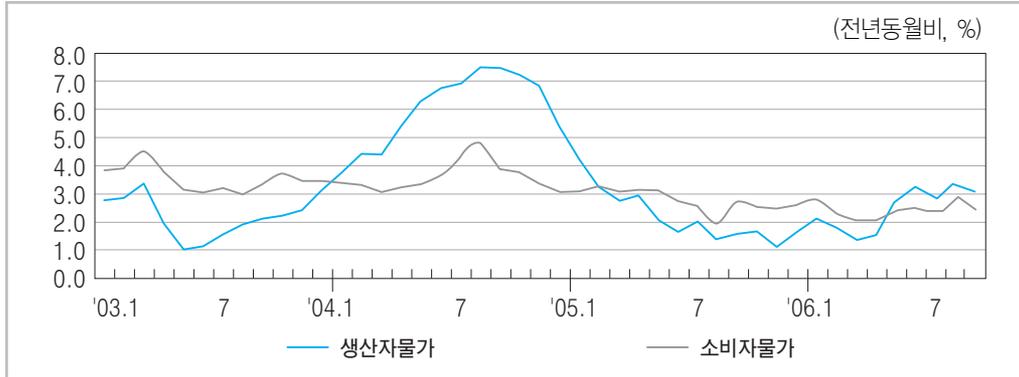
■ 생산자물가, 오름세 확대

- 생산자물가: 1.5%('05년 4분기) → 1.7%('06년 1분기) → 2.4%(2분기) → 3.1%(3분기)

■ 수입물가, 상승률 둔화

- 9월 중 원화환율 하락과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3분기 중 전체 수입물가(계약 통화 기준)의 상승률이 둔화
 -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 지속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표 1-10〉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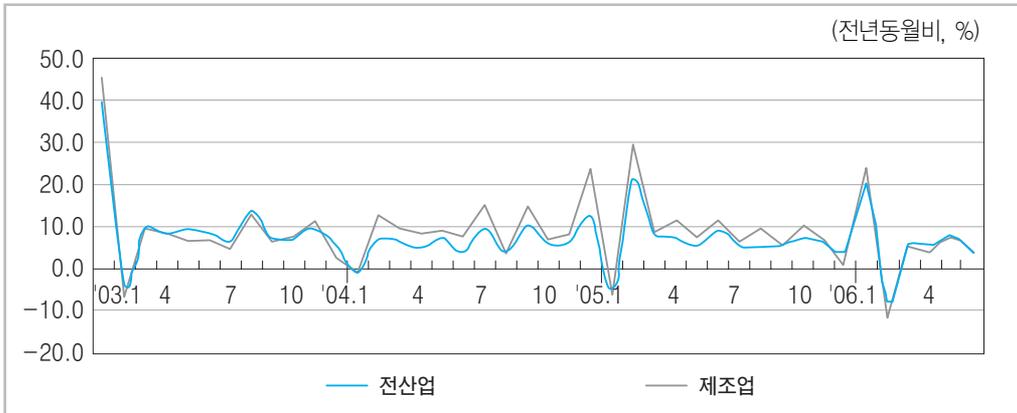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3/4	4/4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2.4	2.5	2.8	2.4	2.3	2.5	2.3	2.9	2.4	
상품	2.8	3.1	3.2	2.4	1.6	1.8	1.4	2.7	1.3	
농축수산물	-0.2	0.6	1.9	0.5	-2.4	0.0	(2.8)	2.3	0.3	
공업제품	3.9	3.9	3.7	3.1	3.1	2.4	2.8	2.8	1.7	
서비스	2.1	2.0	2.4	2.4	3.0	3.2	3.1	3.1	3.4	
집세	-0.5	-0.3	-0.2	-0.2	0.3	0.6	0.5	0.6	0.7	
공공서비스	2.9	2.2	3.2	3.0	4.1	4.8	4.3	4.4	5.6	
개인서비스	2.9	3.0	3.2	3.3	3.6	3.6	3.6	3.6	3.6	
근원인플레이션	2.0	1.9	2.3	1.6	1.9	2.2	2.2	2.2	2.2	
생산자물가	1.7	1.5	2.2	1.7	2.4	3.1	2.8	3.4	3.1	
수입물가	원화기준	4.2	6.2	2.9	8.1	8.8	5.1	7.8	7.5	0.2
	계약기준	17.1	13.7	15.2	14.7	16.2	13.6	17.8	14.6	8.5
	달러기준	17.0	12.2	15.0	13.0	15.4	13.3	17.7	14.2	8.1
가공단계별	원재료	20.7	22.8	18.0	22.4	19.0	9.5	15.3	12.1	1.5
	중간재	0.1	-0.2	0.9	1.6	3.5	4.8	4.8	5.8	3.9
	최종재	0.2	0.9	0.3	0.3	0.5	0.6	0.3	1.0	0.7

■ 임금상승률, 5%대 지속

- 지난해 3분기 이후 5%대의 임금상승률이 올 2분기에도 지속
 - 2분기 임금상승률을 업종별로 보면, 금융및보험업(10.0%), 부동산및임대업(12.3%)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업(8.3%)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차 상승
 - 반면 도매및소매업(7.7%) 전기, 가스및수도사업(4.9%) 등은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증가율이 둔화

<그림 1-8>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표 I -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전산업	6.5	7.4	7.4	5.3	5.7	6.4	5.5	5.6
제조업	10.0	9.9	9.9	7.1	4.9	7.8	4.9	5.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3	4.5	12.0	10.3	2.6	7.2	1.6	4.9
건설업	2.7	1.6	1.9	-1.4	1.7	1.0	6.9	8.3
도매 및 소매업	4.0	9.6	12.6	9.0	16.0	11.8	6.3	7.7
숙박 및 음식점업	4.6	8.2	4.3	6.6	3.4	5.6	3.5	3.3
운수업	5.2	7.3	8.8	9.9	9.5	8.9	4.3	3.4
금융 및 보험업	7.4	8.1	4.8	0.6	9.4	5.7	12.1	10.0
부동산 및 임대업	2.7	9.8	10.2	7.3	10.5	9.4	11.8	12.3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9월 들어 오름세 다시 확대

- 계절적 수요,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물량으로의 전환수요 증가, 3.30대책 및 판교분양 여파로 억눌렸던 수요 등에 기인
 - 서울의 경우 5월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9월에는 강북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 -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2005년		200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0.0	0.2	0.3	0.5	0.6	0.9	1.0	0.5	0.2	0.2	0.5
서울 강북(14개구)	0.1	0.1	0.2	0.3	0.5	0.7	0.7	0.6	0.4	0.3	0.7
서울 강남(11개구)	0.3	0.7	1.0	1.2	1.8	2.3	2.2	0.8	0.3	0.2	0.9

자료: 국민은행

3. 노동시장

■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5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듯

- 금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해서 향후 가시적인 내수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금년 9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28.2만 명 증가하여 1~9월 평균 취업자가 30.0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해마다 새로 유입되는 40~50만 명의 노동인구를 충분하게 흡수하기에는 크게 부족
 - 더욱이 금년 3/4분기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2.1%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 증가에 불과하여 취업시간대별 고용의 질 개선이 미흡한 상황
 - 여기에 연령계층별로는 15~29세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0~49세 취업자 증가는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50세 이상의 취업자가 전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극히 부진하고 50세 이상에서 창출된 고용의 질도 나쁠 것으로 추정

〈표 1-13〉 취업자 추이

(천 명, 전년동기 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	9월	1/4	2/4	3/4	8월	9월
취업자수	22,557	22,856	23,048	22,577	23,409	23,314	23,164	23,330
증감차	418	299	239	331	283	288	317	282
36시간 미만	6.4	8.7	20.0	-5.7	4.5	2.1	6.8	-14.0
36시간 이상	1.2	0.3	-1.3	2.9	1.0	1.2	0.5	3.6
15~29세	-0.6	-2.8	-4.8	-4.0	-4.6	-3.8	-3.8	-3.7
30~49세	1.4	0.3	0.1	1.3	1.1	0.9	1.0	0.9
50세 이상	5.2	6.9	7.6	6.3	5.8	5.5	5.9	5.3

자료: 통계청

■ 실업률은 안정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금년 9월 중 실업자는 76.6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0%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작년 9월에 비해 0.4%p 하락한 3.2% 시현
 - 하지만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0.1%p 높은 7.3%를 기록했고 50~59세 실업자(-34.0%)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교육정도별로는 중졸 이하의 실업자와 고졸 실업자가 -19.4%와 -16.2% 각각 감소한 가운데, 대졸 이상의 실업자 감소는 -0.6%에 불과
 - 여기에 취업 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9월에도 비경제활동인구가 1,475.8만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6% 증가하고 있는 상황

〈표 1-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천 명, 전년동기 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	9월	1/4	2/4	3/4	8월	9월
실업자	860	887	870	915	816	799	807	766
실업률	3.7	3.7	3.6	3.9	3.4	3.3	3.4	3.2
<15~29세>실업률	8.3	8.0	7.2	8.4	7.7	7.5	7.4	7.3
계절조정실업률	3.7	3.7	4.0	3.5	3.5	3.5	3.5	3.5
비경제활동인구	14,300	14,557	14,530	15,101	14,505	14,722	14,864	14,758
증감차	-83	257	333	312	234	189	125	228
증감률	-0.6	1.8	2.3	2.1	1.6	1.3	0.8	1.6
구직단념자	100	125	123	127	114	120	122	112

자료: 통계청

4. 금융시장

(1) 통화지표

■ 광의 통화(M2), 9월 중 증가율이 급증하여 8% 후반인 것으로 추정

- 8월 중 소폭 하락했던 M2증가율은 9월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정부부문의 통화공급과 민간신용이 증가한 데다 국외부문의 통화환수 폭이 감소한 데 기인
- M1증가율은 9월말 추석상여금 지급, 법인세 분납 등을 위한 자금이 수시입출금예금에 유입됨에 따라 감소폭이 5% 후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

〈표 1-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 대비, %, 평잔기준)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중	1/4	2/4	7월	8월	9월
Lf ¹⁾	6.7	6.8	7.3	7.1	7.0	7.2	7.4	7.3	7.4	8중반
M2 ²⁾	6.5	7.1	7.4	6.7	6.9	7.0	7.2	7.7	7.5	8후반
M12 ³⁾	8.1	9.9	13.5	2.6	8.5	-0.6	-2.8	-4.7	-6.1	-5후반
본원통화	1.5	2.5	6.1	6.2	4.1	7.2	7.9	10.2	4.3	4.1

주: 1)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2) 04.4월 이후 시계열 조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편제대상 기관 및 상품 확대 반영)

3) 05.11월 이후 시계열 조정(법인MMF 익일환매제 도입에 따라 종전 M1에서 법인MMF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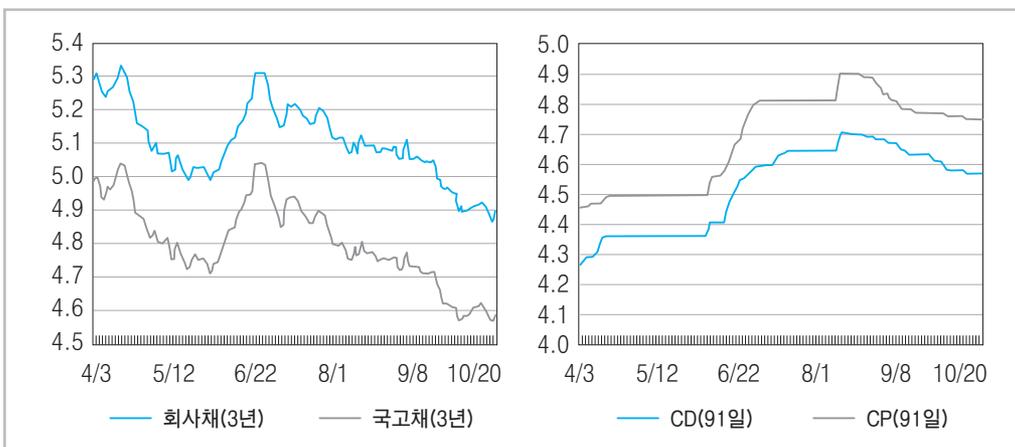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2) 금리

■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금리, 10월초 북핵실험 이후 소폭 등락

- 7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금리는 콜금리 목표 추가인상 기대 약화, 원/달러 환율 하락, 미 국채 수익률 하락,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 등으로 9월말 연중 최저 수준 기록
- 시장금리는 10월 들어 추가하락에 따른 안전자산(채권) 선호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콜금리 목표 동결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다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이후 안전자산 수요 증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국고채 조기 환매 등의 영향으로 하락
 - 6월말 4.89%대였던 국고채는 9월말 4.69%로 하락한 후 10월 들어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이후 등락하다 4.60%대를 유지
- 단기금리는 8월 중 콜금리목표 인상의 영향으로 CD는 4.7%대, CP는 4.9%대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가 지속하여 10월에 CD는 4.57%, CP는 4.75%로 하락

〈그림 1-9〉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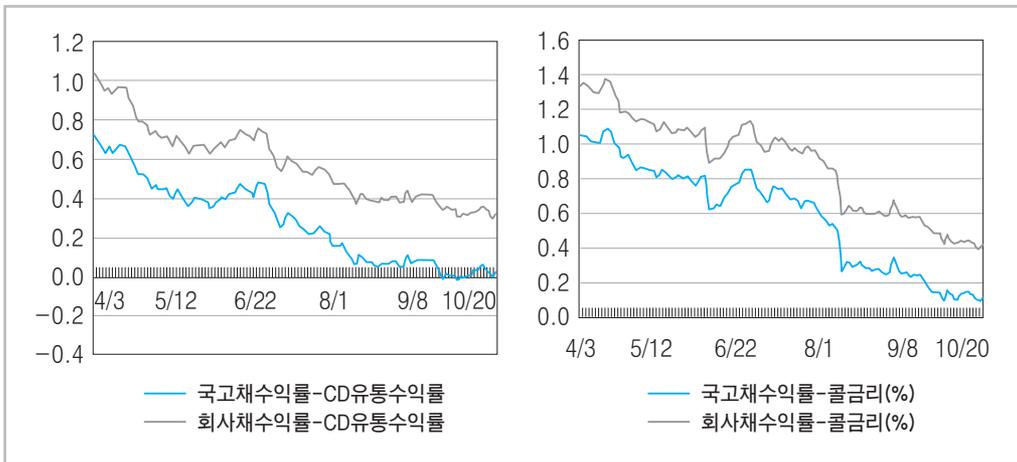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장단기 금리차 및 신용스프레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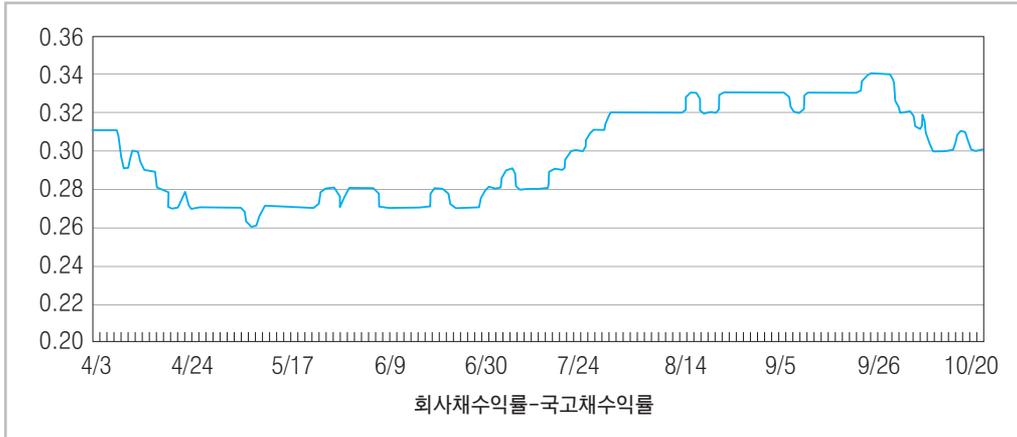
- 장기시장금리(3년물 채권) 하락과 단기금리의 상승, 그리고 경기회복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장단기 금리차는 4월 이후 크게 축소되다가 6월에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일시 다시 확대되기도 했으나 7월 이후 축소가 지속되어 9월 중 한때 장단기 금리(국고채수익률과 CD금리)가 역전
- 7월 이후 국고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9월말 이후 하락

〈그림 1-10〉 장단기 금리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1>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16> 주요 금리 현황

(연리, %, 말일기준)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4일
콜금리(1일물)(A)	3.27	3.25	3.27	3.25	3.70	4.17	4.21	4.42	4.47	4.48
CD유통수익률(91일)	3.39	3.55	3.51	3.70	4.04	4.47	4.63	4.68	4.64	4.57
CP유통수익률(91일)	3.53	3.73	3.64	3.82	4.26	4.63	4.81	4.86	4.78	4.75
국고채(3년)(B)	3.28	4.04	3.79	4.52	5.06	4.89	4.89	4.77	4.69	4.60
회사채(3년, AA-)(C)	3.73	4.48	4.18	4.92	5.49	5.17	5.18	5.13	5.02	4.90
B-A(%P)	0.01	0.79	0.52	1.27	1.36	0.72	0.68	0.35	0.22	0.12
C-A(%P)	0.46	1.23	0.91	1.67	1.79	1.00	0.97	0.71	0.55	0.42
C-B(%P)	0.45	0.44	0.39	0.40	0.43	0.28	0.29	0.36	0.33	0.3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및 대출평균금리 상승

- 2006년 8월 현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4.52%로 전월에 비해 0.06% 상승
 - 8월 중 콜금리 목표 인상 등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중심으로 순수저축성 예금금리와 시장형금융상품 금리가 상승
- 6월 중 대출평균금리는 6.16%로 전월에 비해 0.06% 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는 CD유통수익률 상승, 은행들의 여신기준 강화 및 가산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기인
 - 공공·기타 대출금리는 일부 공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 제공 등으로 소폭 상승

〈표 1-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연%, %p)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12월	12월	6월	7월	8월	월중증감
저축성수신평균금리 ¹⁾	4.12	3.41	4.14	4.48	4.46	4.52	0.06
순수저축성예금	4.10	3.43	4.05	4.37	4.39	4.47	0.08
시장형금융상품	4.16	3.35	4.27	4.61	4.55	4.58	0.03
대출평균금리 ²⁾	6.20	5.52	5.74	5.98	6.10	6.16	0.06
기업대출	6.18	5.54	5.80	6.09	6.16	6.20	0.04
(대기업)	6.07	5.28	5.24	5.56	5.60	5.59	-0.01
(중소기업)	6.21	5.62	5.92	6.21	6.27	6.33	0.06
가계대출	6.31	5.48	5.63	5.72	5.95	6.03	0.08
공공·기타대출	5.73	4.78	5.01	5.24	5.71	5.73	0.02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9월 중 5.7조원으로 크게 확대

- 대기업대출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유지
 - 대기업대출은 8월 중 증가세로 반전했다가 9월에 다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월 중 추석자금 수요,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 등으로 2003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9월 들어 회사채 및 CP가 순발행을 기록했으나 주식발행이 계속 부진하여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저조
 - 7월 이후 주식시장이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9월까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계속 부진
 - 회사채는 장기자금수요 저조 등으로 4개월 연속 순상환을 지속하다가 9월에 추석 연휴로 영업자금 조달용 회사채가 앞당겨 발행된 데다 금리하락에 편승한 선차환 수요가 겹쳐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발행을 기록했으며 CP도 3개월 연속 순발행 지속

<표 1-18> 기업자금조달 추이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6년 9월말 잔액
	1~9월 중	8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원화대출 ¹⁾	11.1	-0.2	0.9	30.7	2.0	2.4	5.7	306.0
(대기업)	2.7	1.0	0.4	-1.8	-0.5	0.1	-0.2	26.9
(중소기업)	8.4	-1.2	0.5	32.5	2.5	2.4	5.9	279.1
은행사모사채인수 ²⁾	1.9	0.4	0.0	12.3	0.8	1.2	1.0	26.6
회사채순발행 ³⁾	2.7	-0.1	1.6	-1.1	-0.6	-0.5	1.0	
CP순발행 ⁴⁾	1.1	-0.3	-0.2	4.9	1.8	1.7	0.1	17.5
주식발행	2.1	0.3	0.2	3.7	0.3	0.2	0.3	

- 주: 1) 은행신탁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3)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4) 증권사 및 증권사 취급분 기준, 3월 25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표 1-19>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5년 1~9월	2006년 1~9월	2006년		2006년 9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8월		
조달총액	586,569	548,664	434,382	330,436	△23.9	19878	45885	130.8
주 식	82,787	67,633	46,534	44,601	△4.2	2038	2844	39.5
회사채	503,782	481,031	387,848	285,835	△26.3	17840	43041	141.3
(일 반)	262,066	221,552	188,572	123,765	△34.4	6940	26210	277.7
(금융채)	79,814	91,250	75,730	70,350	△7.1	7550	6800	△9.9
(A B S)	161,902	168,229	123,546	91,720	△25.8	3350	10031	199.4

- 주: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 납입일 기준
 2) 금융채(여전채, 종금채, 증권회사 발행 회사채 등)는 2001년 7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은행의 가계대출은 7월 이후 증가폭이 확대

-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8월 중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가을 이사철의 영향, 주택거래세 인하 기대에 따른 대출 수요 이월 등으로 9월 중 대폭 증가
 - 8월 중 휴가철 카드사용 대금 결제, 학자금대출 취급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급증했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9월 중 증가폭이 축소

<표 1 -20> 은행의 가계대출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6년 9월말 잔액
	1~9월 중	8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가계대출 ¹⁾	23.3	4.5	2.1	26.2	2.5	2.7	3.4	331.0
(주택담보대출 ²⁾)	16.3	2.6	1.7	16.7	2.3	1.3	2.6	206.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7.3	1.9	0.3	9.6	-0.0	1.6	0.9	122.5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4) 자금흐름 동향

■금융기관 수신고는 8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

-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유입은 7월 들어 전월 비해 감소했으나 8월 이후 양호한 증가세
 - 9월말 주요 금융기관 수신고는 전월대비 10.8조원 증가하여 937.9조원을 기록
- 9월 중 은행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한편 자산운용사는 증가세로 반전하고, 증권, 종금 등 타 금융권은 증가세를 유지

- 9월 중 은행의 수신은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한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금전신탁, CD순발행액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익일매수제 등의 영향으로 MMF 수신고가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금리하락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채권형펀드가 증가세로 반전하고 주식형 펀드, 혼합형펀드, 신종 펀드 등도 증가세를 시현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수신고는 증가
- 증시 등락에 대한 우려로 고객예탁금이 감소한 반면 MMF의 대체금융상품인 RP 수신고가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증권사의 수신고는 증가
-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강세를 유지한 반면 CMA와 CP는 소폭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나 종금사의 수신고는 전월보다 0.8조원 증가

<표 1-21> 금융기관 수신고

(조원)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 7월말	2006년 8월말	2006년 9월 말일	
						잔액	월중 증감
은행 ¹⁾	600.1	594.5	626.8	638.7	644.2	655.0	10.8
자산운용사 ²⁾	145.0	187.0	204.3	222.7	220.9	224.1	3.2
증권	14.5	13.3	19.8	24.5	25.6	26.8	1.2
종금 ³⁾	16.2	17.3	23.2	27.7	31.2	32.0	0.8
합계	775.8	812.1	874.1	913.6	921.9	937.9	16.0

주: 1) 은행은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CD순발행 및 신탁계정 합계

2)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취급분 기준

3) 종금은 2개 전업사(금호, 한불)와 은행 및 증권사의 종금계정 포함

자료: 산업은행, 시중자금 동향

〈표 1-22〉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4	2005	2006				
	연평균	연평균	6월	7월	8월	9월	9월말 잔액
은행 수신 ¹⁾	-0.1	3.0	10.9	-7.2	4.3	13.6	634.0
(실세요구불예금)	0.2	0.7	2.8	-2.1	-1.7	6.5	58.9
(수시입출식)	-0.6	1.8	8.3	-5.5	-2.0	5.2	168.2
(정기예금)	0.0	-0.7	2.5	1.2	4.4	3.2	264.8
(단기시장성)	0.4	1.7	-2.1	-0.5	4.2	-1.2	91.8
[은행채]	1.0	0.7	3.4	4.4	2.8	0.9	104.6
자산운용사 수신 ²⁾	3.5	1.4	-11.7	0.3	-1.8	4.0	224.9
MMF	1.5	0.4	-17.2	-2.6	-3.1	-0.7	52.4
주식형	-0.1	1.5	2.2	1.3	1.3	1.1	43.7
채권형	1.8	-2.0	1.8	-0.6	-0.9	1.5	49.8
혼합형	-0.4	0.7	1.0	0.7	-0.2	1.2	49.3
신종펀드	1.0	0.9	0.4	1.5	1.2	1.0	29.6
증권사 수신	-1.2	-6.5	2.0	2.8	1.1	1.2	26.8
고객예탁금	-1.4	-3.8	-1.0	-0.1	-0.1	-0.2	9.4
RP	0.2	-2.7	3.0	2.9	1.2	1.4	17.4
종금사 수신	-1.1	-5.9	1.5	0.7	3.5	0.8	0.8
발행어음	0.1	-1.1	2.4	-0.3	1.2	0.6	12.6
CMA	-0.3	-0.9	0.4	0.2	1.0	-0.2	4.1
어음매출(CP)	-0.9	-3.9	-1.3	0.8	1.3	-0.4	15.3

주: 1) 은행채 제외

2) 투자신탁+투자회사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산업은행, 시중자금동향

-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9월 들어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이 전체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말 현재 50.0%로 전월(50.3%)에 비해 0.3%p 하락

〈표 1-23〉 금융기관¹⁾의 단기수신²⁾ 비중

(%, 조원)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8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잔액
단기물 비중	49.5	52.6	51.8	51.5	50.6	50.3	50.0	439.9
장기물 비중	50.5	47.4	48.2	48.5	49.4	49.7	50.0	44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80.5

주: 1)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신탁의 수신 평균잔액 기준

2) 단기수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MMF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5) 주식시장

■ 6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가 지속된 주가지수는 10월 들어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을 거쳐 조정국면

- 주요국의 주가상승, IT업종 개선 기대, 국제유가 하락 등의 호재와 경기둔화 우려,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보여 온 코스피지수는 10월 중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빠른 속도로 회복
 - 외국인은 5월 이후 순매도를 지속하여 왔으나 핵실험 계획 발표 이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으려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초기 투매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
 - 북한의 핵실험으로 큰 폭 하락하던 증시는 미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국제유가 하락 등의 해외 호재와 업황 호조 기대에 따른 조선주 강세 지속 및 일부 대기업의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
 - 고객예탁금의 증가(9월말 9.3조원→10월 23일 현재 10.2조원), 주식형 상품 수탁고 증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 등이 주가의 하방경직성 요인이 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가시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추가핵실험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의 추세적 매수전환 여부가 향후 주가 전망의 주요 변수
- 코스닥지수는 7월 하순 이후 IT관련주의 호조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다 10월 중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빠른 속도로 안정됨.

〈그림 1-12〉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4〉 주식시장 주요지표

(조원, %, 말일기준)

	2004년	2005년	2006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3일
종합주가지수(KOSPI)	895.9	1,379.4	1,359.6	1,419.7	1,441.0	1,295.2	1,297.8	1,352.7	1,371.4	1,364.95
거래대금(평균)	2.2	3.2	3.4	4.1	4.1	3.0	2.6	2.7	2.8	2.8
시가총액	412.59	655.07	662.9	693.2	703.7	633.2	636.3	664.9	674.3	670.3
연월중 외국인순매수	+10.48	-3.02	+0.19	+0.47	-0.40	-2.67	-1.58	-2.45	-1.56	-0.324
코스닥지수(KOSDAQ)	380.33	701.79	665.21	685.44	689.89	590.68	557.66	572.83	600.42	586.79
거래대금(평균)	0.63	1.8	1.9	2.0	1.6	1.2	1.1	1.3	1.6	1.5
시가총액	31.1	70.9	69.8	72.3	72.8	63.8	58.1	64.2	68.1	67.3
연월중 외국인순매수	+0.165	0.64	-0.052	+0.028	-0.021	-0.11	-0.14	-0.33	0.07	0.087
고객예탁금	8.1	11.9	11.2	13.3	12.7	9.8	9.7	9.6	9.3	10.2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5. 외환시장

(1) 원화환율

■ 원/달러 환율은 북핵실험의 충격으로 급등 후 960원 선에서 안정

- 미국의 금리인상 동결 및 경상적자 확대 등 글로벌 달러약세(원화강세)요인이다 국내 경기둔화,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증시자금의 이탈 등 원화약세요인과 외평채 적자 논란 등 원화강세요인이 외환시장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 들어 950~960원 박스권 내에서 등락
- 원/달러 환율은 미 경기 호조 지속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및 북한의 핵 실험으로 10월 9일 급등(949.1원→963.9원)했으나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
 - 미국 FRB는 8월과 9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2회 연속 5.25%로 동결했으며, 한국은 7,8월 연속 2개월 경상수지 적자

〈표 1-25〉 원/달러 환율

	2005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연평균	6월	7월	8월	9월	10월 1~23일
원/달러 환율	1,144.7	1,024.3	955.2	950.2	960.7	953.7	954.9
(전년평균 대비, %)	-4.0	-10.5	-6.8	-7.2	-6.2	-6.9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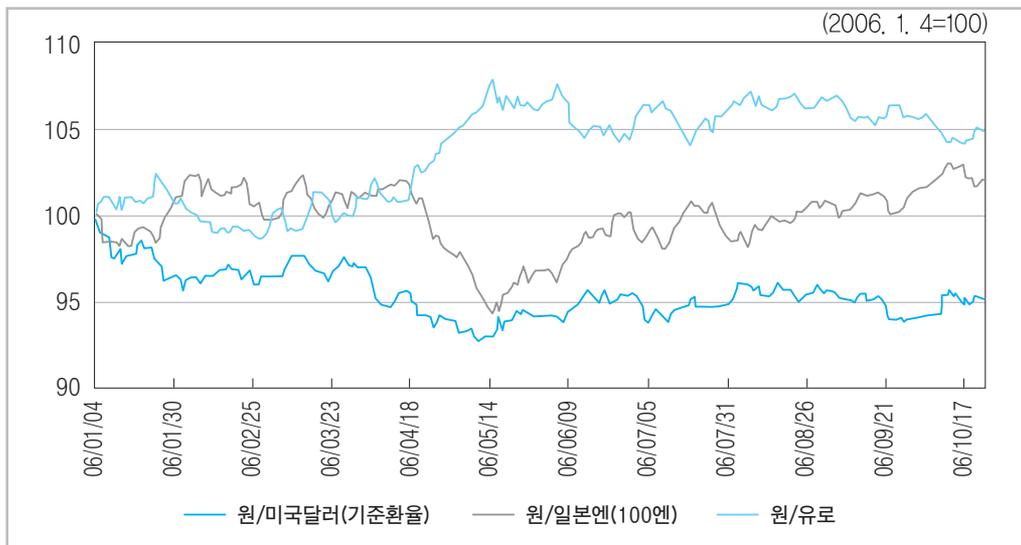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10월 중 한때 100엔당 800원 선을 하향 돌파, 유로화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이후 약세 지속

-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 보다 절상률이 높아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은 강력한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800원 선이 10월 13일 하향 돌파(798.40원)된 후 800원 선에서 등락

- 유로화의 경우, 유럽지역의 경기회복세와 ECB의 금리인상으로 강세
 - ECB는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금리인상 2.25%(2005. 12. 1) → 2.50% (2006. 3. 2) → 2.75%(2006. 6. 8) → 3.00%(2006. 8. 3) → 3.25%(2006. 10. 5)
- 일본의 경우는 10. 13 통화정책회의에서 콜금리를 0.25%로 동결

〈그림 1-13〉 주요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자본 유출입 현황

■ 올 2분기 이후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 크게 증가

-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도 활발해진 데 기인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4~8월 중 121.4억 달러, 내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130.0억 달러가 유출
 -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4~8월 중 28.55억 달러 증가

〈표 1 -26〉 자본 유출입 추이

(억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직접투자수지	45.9	-6.8	11.8	-4.1	-0.7	0.3	-13.1	7.8	-1.1	-6.6
해외직접투자	-46.6	-11.2	-10.7	-11.2	-9.9	-43.1	-14.4	-14.5	-3.8	-10.1
외국인직접투자	92.5	4.4	22.6	7.2	9.2	43.4	1.3	22.3	2.7	3.5
포트폴리오투자수지	86.2	-13.3	-23.8	1.8	22.1	-13.2	14.4	-141.8	-36.7	-16.0
내국인투자	-74.0	-16.4	-27.4	-34.7	-21.6	-100.2	-55.4	-79.6	-21.9	-28.5
외국인투자	160.1	3.1	3.6	36.5	43.7	87.0	69.8	-62.1	-14.8	-44.5
주식	94.7	9.9	2.4	14.9	4.0	31.1	54.3	-66.4	-15.7	-26.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해외경제

(1) 주요국 경제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

- 실질GDP성장률 둔화 등 실물지표 부진
 - 2사분기 성장률이 2.6%에 그침.
 - 산업생산 증가율도 8월 0.0%에서 9월에는 -0.6%로 감소
 - 실업률은 2사분기 4.7%에서 3사분기에는 4.6%로 큰 변화 없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0.4%에 이어 8월에도 0.2% 상승
 - 2006년 8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4.6%로 2005년 연간 3.4% 상승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소비의 호조는 소비자신뢰지수로 볼 때 상반기에 비해 둔화

〈표 1-27〉 미국의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실질GDP ¹⁾	3.2	3.3	4.2	1.8	5.6	2.6	-	-	-
산업생산 ²⁾	3.3	1.6	1.4	5.3	5.1	6.6	3.6	0.0	-0.6
소비자물가	3.4	0.9	1.4	0.8	0.6	1.2	-	0.2	-
실업률(%)	5.1	5.1	5.0	4.9	4.7	4.7	4.6	4.7	4.6
소비자신뢰지수 ³⁾	100.3	102.3	98.9	95.8	105.6	106.6	103.9	100.2	104.5
무역수지(억 달러)	-7,828	-1,814	-1,987	-2,125	-2,081	-2,109	-	-755	

주: 1) 전기비 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 경기회복세 지속

- 2사분기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인 회복세
 - 7~8월에도 높은 수출증가세 지속
 -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세 지속
- 7~8월에는 광공업 생산이 5~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4.1% 유지
- 소비자물가는 2사분기 이후 상승폭 확대
 - 2사분기 0.2% 상승한 후 7~8월에는 각각 0.3%, 0.9% 상승

〈표 1-28〉 일본의 경제지표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실질GDP	2.6	2.6	2.8	3.7	3.6	2.0	-	-	-
(전기비 연율, %)	2.6	5.7	0.8	4.4	2.7	0.8	-	-	-
광공업생산	1.5	0.6	-0.2	3.0	3.2	4.1	5.0	5.1	5.9
소비자물가	-0.3	-0.1	-0.3	-0.5	-0.1	0.2	0.5	0.3	0.9
실업률(%)	4.4	4.3	4.3	4.5	4.2	4.1	4.2	4.1	4.1
수출	7.3	2.9	4.3	6.6	17.6	14.7	14.5	14.2	17.6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EU 경제, 점진적 회복세

- 2사분기 이후 산업생산 증가, 실업률 유지, 경기체감지수 개선 등
 - 산업생산은 6~7월의 정체상태를 벗어나 8월 1.8% 증가
 - 실업률은 2사분기에 7.9%를 기록한 후 7~8월에도 그 수준을 유지
 -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ESI)가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하여 7~8월에는 각각 108.6, 108.3을 기록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사분기 2.5%에 이어 7~8월에도 2.4%, 2.3%를 기록, ECB의 물가안정목표(2.0%)를 상회
 - 9월에는 에너지가격의 하락으로 1.7%의 상승률을 기록

〈표 I -29〉 EU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실질GDP	1.4	0.4	0.6	0.4	0.8	0.9	-	-	-
산업생산	1.2	0.6	1.0	0.6	1.1	1.0	0.0	-0.4	1.8
소비자물가 ¹⁾	2.2	2.1	2.3	2.4	2.3	2.5	2.5	2.4	2.3
실업률(%)	8.6	8.7	8.5	8.4	8.1	7.9	7.9	7.9	7.9
경기체감지수 ²⁾	98.4	96.1	97.9	100.6	103.1	107.2	107.9	108.6	108.3
수출	7.4	6.2	9.9	9.8	16.5	9.5	8.6	7.4	-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 중국경제, 고성장세 지속

- 고성장세의 지속으로 경기과열 우려

- 2분기 성장률은 11.3%, 고정자산투자(1~8월 누적 기준) 증가율은 29.1%
- 통화(M2)증가율은 2사분기 18.8%에 이어 7~8월에도 17~8%의 증가세 유지
- 산업생산은 6월 19.5%의 높은 증가세가 8월 15.7%로 다소 둔화
- 1~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29.1%)이 1~6월(31.3%)에 비해 하락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7월의 소폭 둔화에서 8월에는 다시 상승세
- 높은 수출증가율에 기인한 무역수지 흑자의 확대 지속

〈표 1 -3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실질GDP	9.9	10.1	9.8	9.9	10.3	11.3	-	-	-
산업생산	16.4	16.5	16.2	16.4	19.0	18.0	19.5	16.7	15.7
소비자물가	1.8	1.7	1.3	1.4	1.2	1.4	1.5	1.0	1.3
M2	17.6	14.8	17.2	18.0	18.9	18.5	18.2	18.1	17.6
고정자산투자 ¹⁾	27.2	27.1	27.7	27.2	29.8	31.3	31.3	30.5	29.1
무역수지(억 달러)	1,019.0	231.0	288.0	335.0	232.0	380.0	145.0	146.0	187.9

주: 1)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8월 이후 상승세 주춤

- 이란핵문제에 따른 수급차질 우려 완화 및 재고의 축적으로 8월 국제유가 보합세
 - 3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두바이유 기준으로 7월 평균 배럴당 68달러를 초과했던 국제유가는 8월말 68.85달러를 기록하여 상승세 멈춤.
- CRB 선물지수와 금선물 지수도 보합세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미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상승세 둔화

■ 9월 국제유가 급락

- 중동정정 안정으로 수급차질 우려 완화 및 세계경기 둔화 예상에 따른 수요 약세로 9월 이후 국제유가 급락
 - 두바이유는 9월 30일 기준 59.93달러로 하락
 - CRB 선물가격지수도 9월말 370.10으로 급격한 하락세

〈표 I -31〉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달러/배럴, 1967=100)

	2005년		2006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유가현물(Dubai)	53.27	58.45	57.69	57.89	64.22	65.20	65.24	69.16	68.85	59.93
CRB선물지수 ¹⁾	347.89	359.93	353.27	361.91	379.53	379.8	385.63	391.49	390.95	370.10
금선물	531.5	574	563.9	586.7	654.5	642.5	613.5	634.2		-

주: 1)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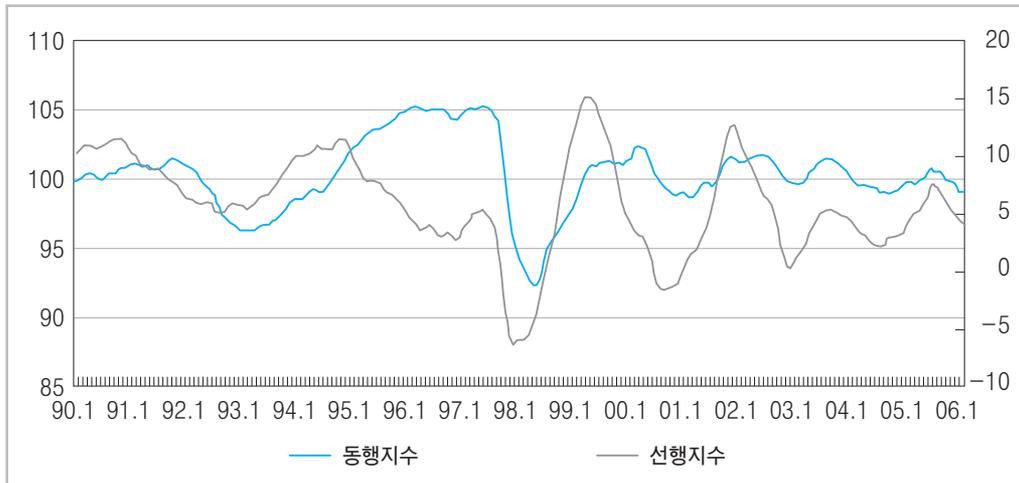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 경기둔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당초 기대에 비해 내수회복세가 미흡하여 경기가 정점을 이미 지나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
 - 현 경기상황을 보여 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에 전월대비 0.1p 상승했으나, 지난 1월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 향후 경기국면의 변화를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도 금년 2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7개월 연속 하락세 시현
 - 다만, 유가 하락, 증가 상승, 반도체가격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소규모 반등으로 최근 심리지표들이 소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 시현

〈그림 1-14〉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자료: 통계청

제II장

2007년 경제전망

-북핵실험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

1. 대내외 여건
2. 북한 핵실험 이후의 예상되는 시나리오
3. 국내경제전망
4. 정책대안

1. 대내외 여건

■유가 불안, 금리인상 지속 등에 의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 주택경기의 하강과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현 정책금리수준의 유지 등의 영향으로 올 2사분기부터 시작된 성장세의 둔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 중국경제, 성장세 지속 가능성
 - 올 들어 금리 및 기준율 인상, 투자억제 조치 등 시행에도 불구하고
 - 내수증가세의 지속으로 내년에도 10% 수준의 성장률 유지 전망
- 일본과 유로지역경제의 회복세 조정 전망
 - 일본경제는 투자·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경기의 조정 등에 의한 수출둔화 등으로 성장세의 미약한 조정 전망
 - 유로지역은 투자·소비 등의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2005년	2006년	2007년	
			IMF	OECD
세계성장률	4.9	5.1	4.9	2.9 ¹⁾
미국	3.2	3.4	2.9	3.1
일본	2.6	2.7	2.1	2.2
유로	1.3	2.4	2.0	2.1
중국	10.2	10.0	10.0	9.5

주: 1) 2005~2006은 IMF통계임.

2)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6.

■국제유가: 수요증가세의 둔화 및 非OPEC 원유생산 증가 등 유가하락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및 OPEC 감산 등 공급측면의 유가강세요인이 결합되어 2007년도 국제유가는 6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 수요증가세 둔화 지속 및 OPEC 원유생산 증가 전망
 -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2006년에 이어 내년에도 수요증가세 둔화 지속 전망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러시아, 아프리카, 브라질 등 非OPEC국가의 원유생산 증가 전망
-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불안 및 유가하락에 따른 OPEC 감산 전망
 -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립 및 이라크 정정불안 등 중동지역의 불안 지속과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정정 불안
 - 최근 유가급락에 따른 OPEC 감산 및 그에 따른 선진국 원유재고 감소와 수급차질 우려 증가
- 최근 급락한 국제유가(두바이유 가격 57.04달러, 10월 20일 현재)는 올 하반기 계절적인 상승 후 2007년에는 위의 두 가지 요인의 상반된 작용으로 배럴당 60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한·미 FTA협상 체결 가능성: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과 진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에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큼.

- 한·미 FTA의 체결은 국가신용도의 상승을 통해 내년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 한·미 FTA는 단일 국가간의 FTA로는 가장 규모가 큰 FTA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체결될 경우, 향후 다시 진행될 DDA협상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및 대외신인도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전망

-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익집단 및 단체의 영향력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증폭되고 사회혼란이 야기될 경우, 협상실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국가로 취급되어 대외신인도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사회혼란으로 인해 투자·소비의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북핵,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부양적 정책 추진 가능성

-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책혼선과 사회적 혼란
 - 200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이완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표류할 가능성
 - 또한 일부 대선 후보들이 대중융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슈를 부각할 경우 경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음.
- 북핵실험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
 - 북한의 핵실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그리고 북한의 대응 등 이번 실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분명 우리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주가 환율 등 금융변수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및 자본유출 등도 가능한 리스크
- 하지만 이처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리스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2. 북한 핵실험 이후의 예상되는 시나리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내외 여건 변화

- 북한의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와 금융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안보 불안으로 인한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실물시장에까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북한 핵실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후 예상되는 상황 변화의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북핵 관련 현재 상황

-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 이후, 10월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한 제재결의(제1718호)를 만장일치로 가결
 - 결의안 통과 이후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4대 은행이 대북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 대북제재에 동참
 - 북한 제재의 실질적 목록 조정 및 회원국의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할 북한 제재위원회가 10월 23일 정식 출범
- 남북경협 및 PSI 참여 관련 한국정부의 미온적 대북제재 가능성
 - 남북경협(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여부에 대한 제재위원회의 판단으로 사업 중단요구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정부는 현재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강경하고 높은 수준의 PSI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반응은 미온적
 - 남북경협 및 PSI 참여 관련 현재의 한국정부 입장은 한·미간 외교마찰 및 제재위원회의 불협화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북핵 관련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의 순조로운 추진**
 - 북한의 반발(국지적 무력충돌 혹은 추가 핵실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정부와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시나리오 2: 남북경협 · PSI 참여 관련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불협화음 발생 및 그에 따른 국내 갈등 고조**
 - PSI 참여 확대: 현재 미국이 높은 수준의 PSI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기존 입장은 남북해운합의서 이상의 별도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해석, 이로 인해 양국간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
 - 금강산관광 사업: 북한에 현금을 전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힐 미국무부 차관보의 언급으로 볼 때 미국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제재위원회로부터 중단 요구가 예상되나 한국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이로 인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개성공단 사업: 힐 차관보의 언급으로 금강산관광에 비해 중단 요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역시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 · 미 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리의 언급으로 판단할 때 중단 요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한국정부가 현 수준의 사업유지를 고수할 경우 그로 인한 불협화음의 발생 가능성 높음
 - 위의 세 가지 문제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국내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결능력이 낮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고 대외신인도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한국정부가 금강산관광 ·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즉각적 무력대응 가능성은 낮은 반면 PSI 참여 확대 시 최악의 경우 해상봉쇄로 간주하여 국지적 무력충돌 불사할 가능성
- **시나리오 3: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 및 해상봉쇄에 따른 군사적 긴장상태(국지적 무력충돌 포함)**
 - 북한의 반발: 경제제재의 이행에 북한이 반발하여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해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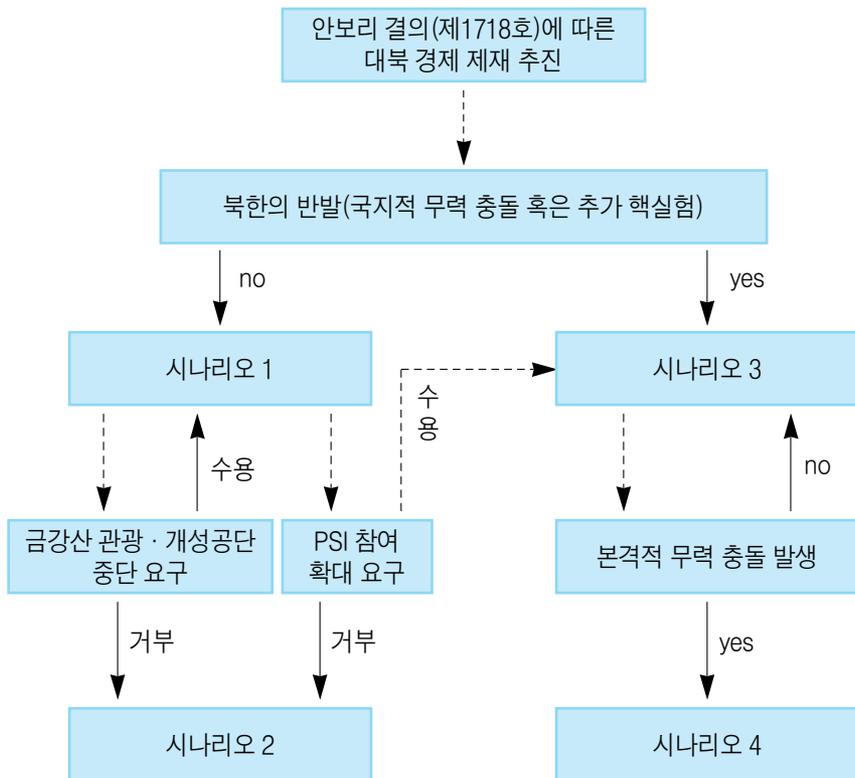
의 국지적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될 가능성이 큼.

- PSI 전면 확대에 대한 북한의 반발: 경제봉쇄로 간주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봉쇄 및 국지적 분쟁의 심화에 따라 북한체제의 붕괴위험도 높아질 수 있음.

- **시나리오 4: 본격적인 무력충돌 발생 및 북한체제의 붕괴 임박**

-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경우 본격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 본격적 무력충돌 혹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림 II-1> 북핵 관련 시나리오 흐름도



주: 수용과 거부의 주체는 한국정부임.

-----> 개연성 있는 진행 방향
 -----> 상황에 따른 진행 방향

3. 국내경제전망

■전망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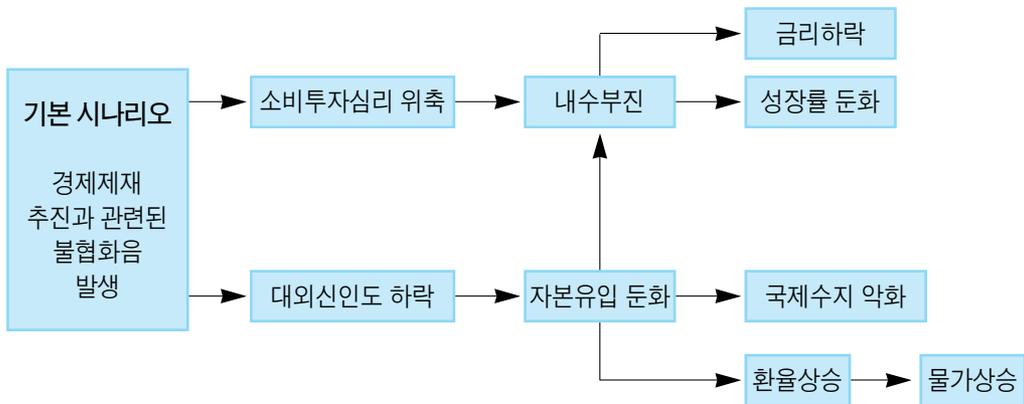
- 주요국 경제성장률: IMF(2006년 9월 발표), OECD(2006년 5월 발표), ADB(2006년 9월 발표)의 평균치를 이용
⇒ 2007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 미국(2.9%), 중국(9.8%), 일본(2.2%)
- 국제유가: 산유국들의 정정불안 등 상승요인이 있으나 전체적인 수요 둔화가 예상
→ 두바이유 기준으로 2007년 평균 60달러/bbl 내외
- 시나리오 2를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시나리오 3은 상황악화 시나리오로 설정
 - 시나리오 1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시나리오 4의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과거의 경험 및 사례를 통해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봄.

■기본 시나리오 전망

- 경제제재가 추진(41조 등)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의 불협화음 발생(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PSI 수준 관련)하는 경우
- 성장둔화: 2006년 4.8% → 2007년 3.8%
 - 고용 및 소득 증가세가 둔화, 주택보유자 세 부담 증가 등 ⇒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 설비투자압력(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지난해 4분기 이후 80%대 지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경기, 기업투자환경 개선 미흡,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책혼선 등 ⇒ 설비투자의 가시적 증가율은 어려움.
 - 기업도시, 민자사업 등 공공건설 투자확대 계획, 2006년 마이너스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는 개선되었으나 부동산경기 억제 정책의 영향(민간건설이 호조였던 2002년 하반기와는 달리 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건설이 부진한 상태여서 공공부문 건설의 효과가 반감) 등 ⇒ 건설투자의 부진 지속
 - 북핵변수로 인한 가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의 위축,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

- 확대, 대외신인도 하락, 자본유입 감소 등 ⇒ 추가적인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 미국 등 주요국 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가 예상되나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 IT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는 내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증가율의 제한적 둔화

〈그림 II-2〉 기본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 흐름도



-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 2006년 2.5% → 2007년 2.9%
 - 경기둔화에 따른 물가하락요인과 내년도 국제유가의 안정 전망에도 불구하고
 - 지정학적 위험고조가 환율상승을 통해 국내물가의 오름세를 확대시킬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하락: 2006년 5.2% → 2007년 4.7%
 - 경기둔화와 대선을 의식한 경기부양정책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핵실험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한국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시중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원화환율 상승: 2006년 961원 → 2007년 972원
 -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 미흡,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 우리의 경기둔화와 경상수지적자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환율상승요인과 북핵

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

- 국제수지 악화

- 경상수지 적자전환(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확대 추세가 계속)이 예상
- 북핵실험의 영향으로 외국인 여행객 수가 감소하면서 서비스 적자는 확대되고 자본유입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국제수지는 악화될 전망

〈표 II -2〉 2007년 국내경제전망(기본 시나리오 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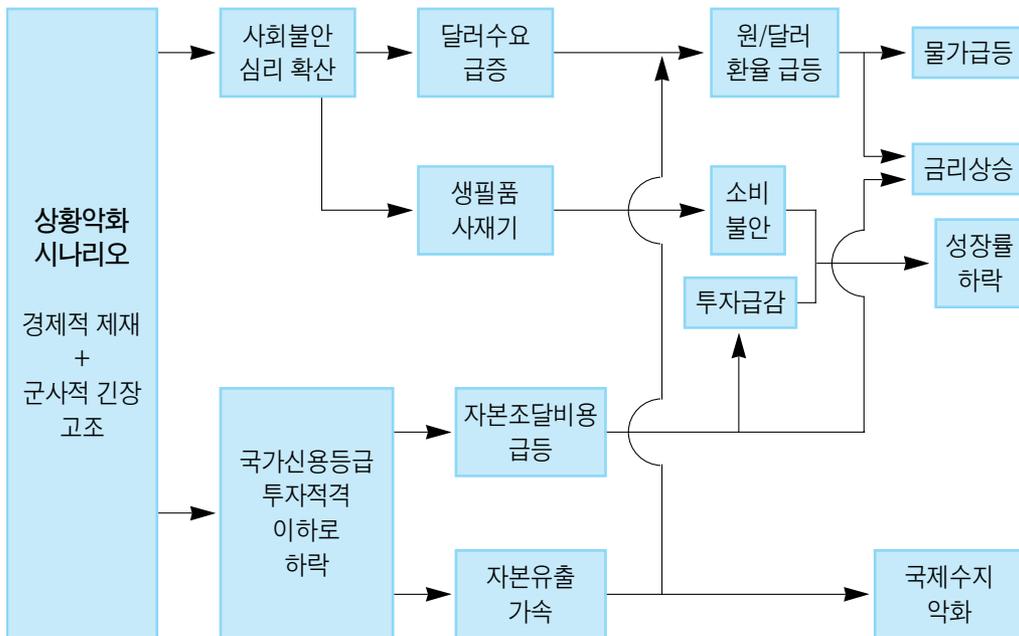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GDP	4.0	6.1	5.3	4.6	3.6	4.8	3.8
(SA, 전기비 연율%)		4.9	3.4	3.7	2.5		
민간소비	3.2	4.8	4.4	3.9	3.3	4.1	3.3
건설투자	0.4	1.2	-3.9	-1.3	-1.1	-1.5	0.8
설비+무형고정자산	4.9	6.7	7.5	9.4	6.7	7.6	5.7
수출(재화+서비스)	8.5	11.5	15.9	12.2	9.6	12.2	8.1
수입(재화+서비스)	6.9	12.3	13.6	11.5	9.2	11.6	7.9
소비자물가	2.8	2.3	2.4	2.5	2.6	2.5	2.9
생산자물가	2.1	1.7	2.7	3.1	3.0	2.6	2.8
경상수지(억 달러)	165.6	-11.2	6.9	3.4	23.1	22.3	-30.6
상품수지(억 달러)	334.7	52.2	74.1	63.0	73.0	262.4	223.9
수출(억 달러, BOP 기준)	2890.0	758.0	821.3	853.5	884.8	3317.6	3642.7
증가율%	12.1	11.4	16.3	18.0	13.5	14.8	9.8
수입(억 달러, BOP 기준)	2555.2	705.8	747.1	790.6	811.8	3055.2	3418.8
증가율%	16.4	19.8	20.5	22.0	16.2	19.6	11.9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9.1	-63.4	-67.2	59.6	-49.9	-240.1	-254.5
환율(원/달러, 평균)	1024	976	949	958	960	961	972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5.4	5.2	5.1	4.9	5.2	4.7
실업률(%)	3.8	3.9	3.4	3.3	3.3	3.5	3.8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 상황악화 시나리오 전망

- 해상봉쇄에 따라 군사적 긴장상태(소규모 무력충돌 포함)가 고조되어, 사회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하로 추락하는 경우

〈그림 II -3〉 상황악화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 흐름도



- 성장률 급락: 3.8%(기본 전망) → 1.9%(상황악화 전망)
 - 국가신용등급의 급락* 등으로 자본조달비용 상승, 자본이탈 가시화
 - 사회불안심리 확산으로 원활한 소비활동이 제한
 - 물가급등, 금리상승 등으로 투자부진 심화
- *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단기간 내에 투자적격범위(Moody's는 Baa3, S&P와 Fitch는 BBB- 이상) 이하로 하락한 바 있음.
- S&P: AA-(97.10.23) → B+ (97.12.23): 10단계 하락
- Moody's: A1 (91.11.27) → Ba1 (97.12.4): 6단계 하락
- Fitch: AA-(97.11.17) → B- (97.12.23): 12단계 하락

- 소비자물가 급등: 2.9%(기본 전망) → 5.2%(상황악화 전망)
 -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생필품의 사재기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상승: 4.7%(기본 전망) → 5.6%(상황악화 전망)
 - 추가제재 및 국지적 무력충돌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국내경제의 성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은 금리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대외신인도 하락과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에 따른 원화환율의 급등을 억제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환율이 급등할 경우 실물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금리인상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 것임.

- 원화환율: 972원/달러(기본 전망) → 1048원/달러(상황악화 전망)
 - 불안고조로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과 미국 달러 등 안전통화 사재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

- 국제수지 대폭 악화
 - 국가신용등급의 투자적격 이하로의 하락은 외국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초래하면서 자본수지를 악화시킴.(외환위기 당시 97년 11~12월 두 달 동안 자본수지는 108억 달러 적자)
 -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속성상 외국인 여행객수가 급감에 불가피해 경상수지의 적자도 확대될 가능성

〈표 II-3〉 시나리오별 2007년 경제전망 비교

	2007년		
	기본 전망(A)	상황악화 전망(B)	(B)-(A)
GDP(%)	3.8	1.9	-1.9%p
민간소비(%)	3.3	0.9	-2.4%p
건설투자(%)	0.8	-2.5	-3.3%p
설비+무형고정자산(%)	5.7	0.1	-5.6%p
소비자물가(%)	2.9	5.2	2.3%p
수출(국제수지기준, %)	9.8	5.3	-4.5%p
수입(국제수지기준, %)	11.9	4.1	-7.8%p
환율(원/달러, 평균)	972	1,048	76원/달러
회사채수익률(3yrs, AA-, %)	4.7	5.6	0.9%p

■ 시나리오 1

- 과거 사례에서처럼(참고자료 3) 북핵실험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단기간에 그쳐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경우
 - 내년 경제는 약 4%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기존 2006년 8월 전망 유지)

■ 시나리오 4

- 본격적인 무력 충돌 발생 및 북한 붕괴의 경우 경제적인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움.
- 하지만 과거 독일 통일 후의 경제상황과 그동안 발표된 한국의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시나리오 4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음(참고자료 6, 7 참조).
- 독일은 재정적자 확대, 기업경쟁력 약화, 경상수지 적자 등 막대한 통일비용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하락
 - 독일의 국가경쟁력(IMD기준)은 1990년대 초 세계 2위였으나, 1990년대 중반 10

위권 밖으로 밀려나 2001년 13위, 2005년 23위를 기록

-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당시 동서독간의 격차를 크게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을 대비 없이 맞이할 경우 우리의 후유증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최근에 이루어진 통일비용 관련 연구(RAND, 2005)에 의하면 북한의 GDP를 통일 시점의 두 배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GDP가 남한의 2% 수준일 경우는 500억 달러, 북한의 GDP가 남한의 8% 수준일 경우는 6,700억 달러가 소요됨.
 - 이 규모는 2004년 한국의 경상GDP(6,809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준

4. 정책대안

■북핵실험 사태의 전개양상별 비상경제대책(contingency plan) 강구

- 향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실험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단계별 정책 요망
 - 내수회복세가 미흡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호조세가 세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북핵사태를 고려하지 않을지라도 경기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
 - 향후 실제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 2차 핵실험 등을 포함한 북한의 대응 내용, 대북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조율 문제 등이 북한 핵실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북핵실험 사태의 상황 진전에 따라 국내외 경제심리 위축 등이 나타나면서 향후 실물경제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단계별 비상경제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
 -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의 거시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 등의 미시경제정책을 동반하는 정책조합(policy mix) 요망
 - 정부는 북핵사태에 따른 국내외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약화되었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충격을 가져왔음을 국내외 투자자나 신용평가기관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확산하는 데 노력

■기본 시나리오 상황에 대비한 정책대안

-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요인(downside risk)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기를 지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동원하기에 앞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 등의 미시경제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되, 경기급락이 예상되면 거시경제정책도 동반 추진

- 재정정책: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재정의 철저한 집행을 점검하고, 내년 복지 예산을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부분으로 재배정하며, 내년 상반기 경기가 크게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 조세정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특소세 인하 또는 폐지 등을 모색하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서 법인세나 각종 거래세 등의 인하도 추진
- 통화정책: 금융기관이나 가계신용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서민금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시중유동성의 변화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고, 현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필요는 아직은 크지 않으나 경기급락이 예상되면 단계적 금리인하도 추진
 - * 9.11 사태 당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가 9월 13일 임시회의를 열고 당시 유동성을 점검하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에 없던 9월 17 일에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3.50%에서 3.00%로 0.5%p 인하
- 외환·환율정책: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외환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개입(smoothing operation) 도모
- 기업·노동정책: 정부는 수도권과 대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출생제 폐지 등과 같은 선연적인 조치도 고려하며, 기업은 해고 자제를 통해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근로자는 노동쟁의를 최대한 자제
 - * 비수도권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9.28)을 보완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및 대기업의 투자여건 개선대책 마련

■ 상황악화 시나리오 상황에 대비한 정책대안

-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여 국내 경기가 급격히 경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시스템을 동원할 필요
 - 재정·조세정책: 일정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되 신규사업의 발주보다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설투자사업 등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완성형 예산에 주로 배정하고, 한시적인 비과세·감면세 확대 등도 고려
 -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단기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통화가치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외환·환율정책: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외국환거래법 6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1조 등에 의거하여 외국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도 작동
- 기업·노동정책: 노사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동결, 무해고, 무분규 등을 선언할 필요

〈참고자료 1〉 북한 핵실험 사건 일지

- 2006. 07. 05.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 2006. 07. 16.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제1695호) 만장일치 통과
- 2006. 08. 18. 미 ABC 방송,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 2006. 10. 03.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 2006. 10. 06.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 2006. 10. 09.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
- 2006. 10. 15. 유엔 안보리, 유엔 헌장 제7장 및 산하 41조에 의거 대북한 제재결의(제1718호) 만장일치 가결
- 2006. 10. 23.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공식 출범 및 제재대상 선정 착수

〈참고자료 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결의(제1718호) 내용

■ 유엔 회원국 준수 사항

- 전차,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관련 물품 및 핵,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장비, 기술 등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판매, 이전, 공급하는 행위 금지
- 사치품들의 북한으로의 판매, 이전, 공급 행위 금지
- 자국민이나 자국 항공기·선박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위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
-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제조·유지·사용 등에 필요한 기술적 훈련, 서비스 등의 북한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이전 금지
-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의 동결
- 안보리 및 제재위원회에 의해 북한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가족의 입국 또는 경유 차단 조치
-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차단을 위해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회원국에 요구
- 위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의안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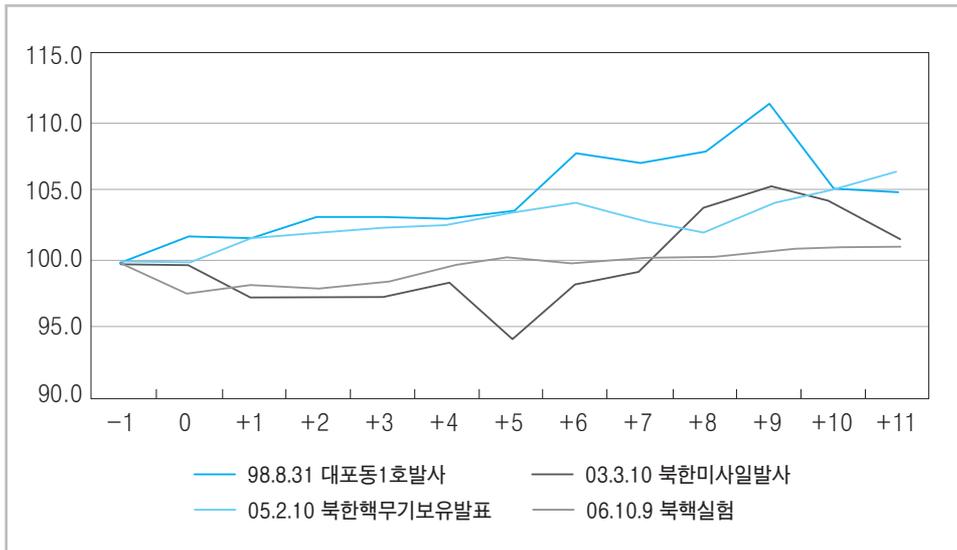
■ 안보리 이사국들로 이루어진 제재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

- 제재품목 관련 정보 요청 및 이견에 대한 해석
-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 예외사항에 대한 요청을 검토, 결정
- 추가 대상품목 및 여행제한 개인 및 단체의 지명

〈참고자료 3〉 과거 북한 관련 리스크와 경제적 영향

-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간에 소멸되거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10월 9일 북핵실험 이후 주가지수는 4일 만에 사건발생 전일의 수준을 회복함으로써 지난 2003년 3월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 때보다도 부정적 영향이 빨리 소멸
 - 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 때에는 주가가 상승하였고, 2005년 북핵무기 보유발표 당시에는 당일만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거의 없었음.

〈그림 참고-1〉 북한 관련 사건 발생시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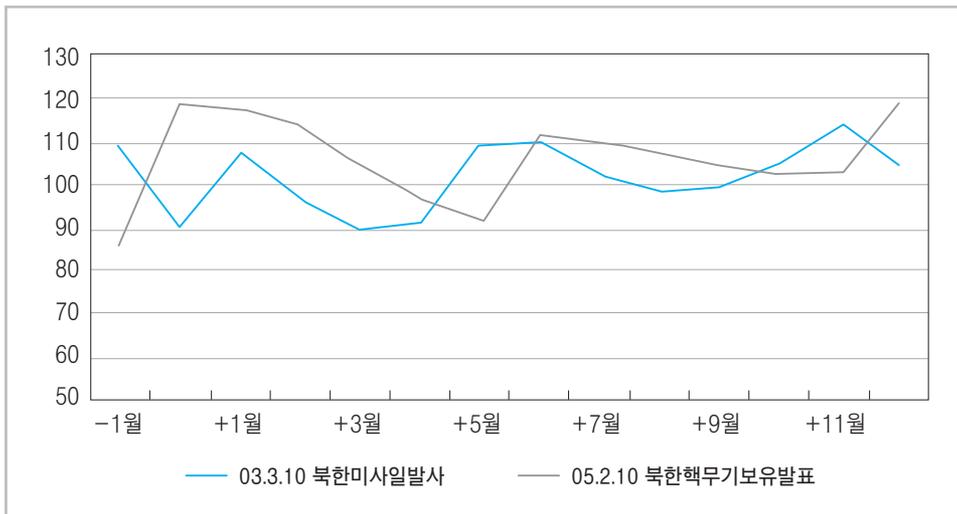


주: 사건 발생전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함.

■ 실물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 사건 발생 1년 동안 소비자대지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3월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 때에는 당월 소비자대지수가 하락했지만 이후 기준치(=100.0)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2005년 북한 핵무기 보유 발표 때에는 약 5개월간 소비자대지수가 하락했지만 대부분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없었음.

〈그림 참고-2〉 북한 관련 사건 발생시 소비자대지수 추이



■ 북핵실험 당일(10/9),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는 않고 앞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 “국제 사회의 대응 방향을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등급은 이미 북한 리스크가 반영된 것”(피치의 얀 아이링 이사)
 - “지금으로선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봄. 등급 변경 여부는 미국의 반응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달려 있음.”(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오가와 다카히라 국장)
 - “한국의 신용등급이 북한의 핵실험에 즉각적인 영향이 없을 것.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어되는(remain contained) 한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에 부정적 영향(consequence)은 없을 것”(무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

■ 북핵실험 이후 국내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북핵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음.

- 로이드 등 영국 보험회사들은 북한 주변 해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전쟁보험료 인상 추진(니혼게이자이신문 2006. 10. 23 보도)
- 한국이 차입하는 단기외채의 가산금리가 상승
 - 북한의 핵실험 이전 기준금리(리보: 런던은행간 금리)에 3~4bp 추가되었던 3개월 만기 대출 자금의 가산금리가 핵실험 이후 12~13bp로 급등(중앙일보 2006. 10. 24 보도)

〈참고자료 4〉 북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1. 대북 경제제재의 내용

■ UN 대북제재 결의안(제1718호) 관련 다자관계에서의 제재

- 전차 등 지정군용품과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 등에 기여하는 물자와 사치품 등의 수출 금지
- 대량살상무기 등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 관리하는 금융자산 동결
- 위 제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해상·항공 봉쇄 및 검색

■ 주요 관련 국가들의 양자관계에서의 제재

- 미국은 이미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실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PSI 확대 및 심화, 북한의 해외금융거래의 봉쇄 및 해외금융자산 동결을 가속
- 일본 또한 이미 최종용도상 포괄적 적용인 캐치올(Catch All) 규제의 도입과 함께 대북 무역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북한선박 입항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 입국 전면 금지 등을 시행
- 중국은 UN 결의안에 공조하는 차원에서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북 무상원조의 축소, 원유·식량 지원 중단 등이 북한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 또한 UN 결의안에 공조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의 제한 혹은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 축소 및 중단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대북 경제제재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 대북 무역제재로 인한 대외교역 감소는 북한의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북한경제에서 대외교역의 성장은 북한경제 성장률을 매년 3.5%p 상승시키는 효과를 수반(이영훈, 『북중교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 2000~2004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대외교역 증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임.
- 한·중·일 3국의 대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북한 전체 교역의 70% 정도를 차지

〈표 참고-1〉 북한의 주요 국가별 대외교역 추이(1995~2005년)

(백만 달러, %)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전체 교역액	2,339	2,485	1,813	2,673	3,115	4,058
한국	287.3	308.3	333.4	403.0	724.2	1,055.8
중국	549.8	656.3	370.4	739.8	1,022.9	1,582.0
일본	594.7	489.3	350.4	474.7	265.3	193.6
3국 비중	61.2	58.5	58.1	60.5	64.6	69.8

- 따라서 한·중·일 3국이 대북 무역제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 북한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예상

■ 대북 금융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화 유입의 차단은 북한 내 외화난을 가속화

- 북한의 외화난은 정상적인 무역·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 예상

- 원유 및 기계류·화학제품 등 그동안 경화 결제를 통해 수입해 오던 것이 불가능해져 북한 산업의 가동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북한 내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운용이 심화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경협 축소·중단 규모에 따라 북한경제에 추가적인 부정적 효과 예상

-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UN 및 주요 국가들의 대북 경제제재 강행에 공조하여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사회 및 남한 내 부정적 여론 등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

•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전면 중단은 다른 제재들 이상으로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임.

-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사업은 일부 축소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

•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 송금액은 2005년 기준 1,348만 달러, 개성공단사업을 통한 유입 금액은 2006년 5월 현재 약 2,000만 달러 정도임.

〈참고자료 5〉 군사적 긴장 고조의 사례

■ 대만과 중국간 군사적 긴장고조의 경제적 영향

- 1995~1996년 중

- 대만총통의 독립 관련 발언 및 미국 방문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인 중국은 1995년 7월 대만해역 미사일 발사 훈련 실시
- 이에 대만은 군사방위체제를 강화. 미국은 항공모함 파견 등의 중재 역할을 수행, 새총통의 취임으로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음.
⇒ GDP성장률 하락: 7.1%('94년) → 6.4%('95년) → 6.1%('96년)
주가지수(TSE) 급락: 6,253('94년) → 5,544('95년) → 6,004('96년)

- 2000~2002년 중

- 대만 총통 첸수이비엔은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며 중국과의 관계개선 추구발언(2000년 3월)
-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강행(2001년 1월)
- 중국, 대만 사정거리권 내에 미사일 기지 건설(2001년 9월)
- 대만은 미국의 지원 아래 최대 군사 훈련(2001년 6월)
⇒ GDP성장률 큰 폭 하락: 5.9%('00년) → -2.2%('01년) → 3.6%('02년)
주가지수(TSE) 급락: 7,847('00년) → 4,907('01년) → 5,226('02년)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주변국의 긴장고조

- 사건 관련 주요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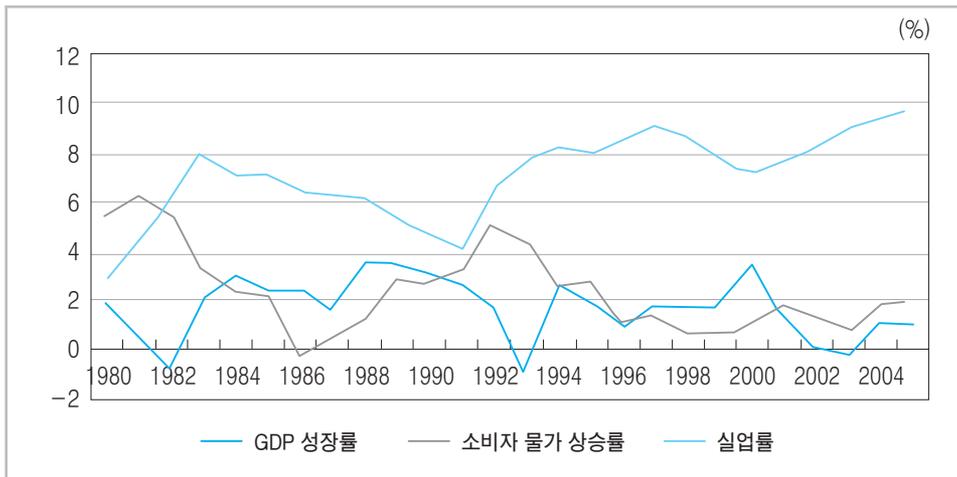
- 1990년 8월: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합병을 선언
- 1991년 1월: 이라크가 사우디, 이스라엘 등을 공격하면서 걸프전 시작
- 1991년 2월: 미군 등 다국적군 이라크 영내 진격
- 1991년 3월: 걸프전 종식
⇒ 사우디의 주가지수 하락: 1,087('89년) → 979('90년)

〈참고자료 6〉 독일 통일 후의 경제상황

- 북한이 붕괴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은 독일 통일의 경제적 파장을 유추하여 추론할 수 있음.
 - 통일 전 동독의 GDP와 무역규모는 서독의 16%와 7.7%에 불과
 - 동독의 경제지표가 과대계상된 점을 감안하면 동·서독간 실제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
 - 통일 전 서독은 GDP 대비 0.1~0.2% 정도의 자금을 매년 동독에 지원
 - 남북한의 경우 GDP 규모 40~50배 이상의 격차
- 서독은 동독을 흡수하는 빅뱅방식의 통일을 급속히 진행
 - 당초 서독정부는 경제통화동맹(GEMU)에 의한 3단계 통일방안을 수립했으나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경제의 급속한 악화와 동독주민의 대량 서독이주로 1990년 7월부터 경제통합을 시작하고 그해 10월 동독을 흡수 통일
- 독일 통일의 거시 경제적 효과
 - 통일 후 독일의 실질GDP는 약 14% 증가(1990년 2분기에서 1991년 1분기 사이)했으나 1인당 GDP 약 10% 감소
 - 실질GDP가 증가했으나 인구 26% 증가
 - 1인당 GDP는 세계 3위(서독의 1989년 순위)에서 10위로 하락(1997년)
 - 1991년 통일 독일 성장률은 1%로 유럽국가 평균 1.8%보다 낮고 1960~1990년 서독 성장률 2.27%보다 크게 낮았으며, 1993년에는 마이너스 1.2% 성장
 - 서독지역 성장률은 1989년(3.5%), 1991년(5%), 1993년(2%)

- 동독지역 성장률은 1989년(1.9%), 1991년(-14.4%), 1992년(-30.3%), 1993년(7.8%), 1996년(1.8%)을 기록했으며 이후 비슷한 추세
- 1인당 GDP의 하락폭만큼 1인당 소비가 감소하여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

〈그림 참고-3〉 독일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자료: OECD Historical Statistics

- 통일 독일의 실업률은 1990년 6.4%였으나 1991년(6.6%), 1992년(7.8%), 1993년(8.9%), 1994년(9.6%)으로 급증
 - 이는 동독의 실업률이 1990년(2.9%), 1991년(11.1%), 1992년(15.3%), 1993년(15.5%), 1994년(15.3%)으로 급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 통일 이후 동독 제조업 급속히 붕괴
 - 동독지역 통일 첫해인 1990년 산업생산은 통일 전 수준의 3분의 1로 감소 (66% 감소), 미국 대공황의 35% 감소, 다른 동유럽 국가 체제전환 후 25% 감소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
 - 1991~2000년 동안 제조업에서만 약 100만 명 실업자 발생

- 서독정부는 통일비용을 과소평가¹⁾
 -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약 1,150억 마르크(800억 달러)를 투입하면 실질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실제 통일비용(순공공이전지출)은 2000년까지 1.2조 마르크에 달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
 - 광의의 개념에 의한 통일비용(투자와 이전지출)은 1991~2000년까지 10년간 약 2.6조 마르크로 추산
 - 독일정부는 동독경제의 회생을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하여 1995년 이후에도 매년 1,400억 마르크(GDP의 4%)의 공적자금을 동독으로 이전
 - 거시지표와 재정이 통일 전 최상의 상태였기에 대규모 지원이 가능
 - 통일비용 조달 위해 1991년 4월 이후 증세조치 수차례 단행

<표 참고-2> 독일의 재정지출 추이

(GDP 대비, %)

	1991년	1994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5년
정부지출	47.1	49.0	49.3	45.9	48.4	46.7
사회보장지출	26.4	29.0	30.3	29.8	30.0	29.3
재정적자	-2.9	-2.4	-2.7	-1.3	-4.0	-3.3
정부부채	40.4	49.4	61.0	60.3	63.8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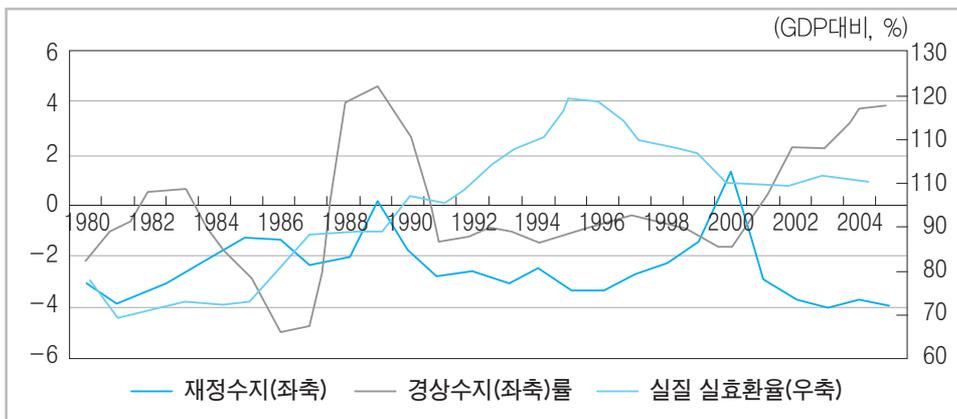
자료: Eurostat

- 통일 후유증은 서독경제에 부메랑 효과로 작용
 - 1:1의 무리한 화폐교환비율 적용과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동독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동독산업의 기반이 붕괴함으로써 실업이 급증
 - 동독의 실업자가 급증하자 독일정부는 동독에 대한 이전지출 중 57%를 실업보험금으로 지출함으로써 통일비용은 예상보다 증가

1) 독일의 통일비용과 통일후유증의 경제적 효과는 김득갑, 『독일경제의 장기 부진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2. 11. 19, pp.17-24를 인용

- 늘어나는 통일비용을 조달키 위해 증세를 추진했으나 동독의 고용사정악화로 실업 관련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확대
- 통일비용 증가로 대규모 통화증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독일연방은행은 초긴축정책을 실시
 - 고금리정책은 독일기업의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약화
 - 통일비용을 대느라 독일정부는 성장잠재력 제고에 필요한 고정자본형성 투자를 제대로 못함.

〈그림 참고-4〉 독일의 재정수지, 경상수지 추이



자료: 재정수지는 IMF, 경상수지는 OECD, 실질실효환율은 IFS

- 통일비용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생산성 악화 및 잠재성장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통일 후 약 10년간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
- 과도한 통일비용 지출에 따른 후유증은 결국 기업들에게 전가되어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약화
- 독일의 국가경쟁력(IMD기준)은 1990년대 초 세계 2위였으나, 1990년대 중반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2001년 13위, 2005년 23위를 기록

〈참고자료 7〉 북한 핵실험 이후 통일비용 관심 증가

■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통일비용에 관한 관심 증가

- 10월 9일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대두
-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며 통일비용은 우리 경제의 진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통일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당위론적 접근에서 편익을 함께 고려한 순비용 접근으로 전환

- 독일 통일 이후 시작된 우리의 통일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는 '통일은 우리 국민의 염원'이라는 생각 하에 당위론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작
- 이후 독일 통일에서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되며 통일에의 부정적인 시각이 부각
- 그러나 최근 햇볕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편익을 강조하는 경향이 대두됨에 따라 통일비용에 순비용 개념이 도입

〈표 참고-3〉 통일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출처	추정 방법	개 념	비 용
KDI (1991)	-노동생산성 분석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남한의 70% 수준으로 -정부 재정 부담	-점진적 통일: 1,900억~2,100억 달러 -급진적 통일: 3,017억~3,121억 달러
배진영 (1993)	-독일의 경험을 비교	-북한 지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남한과 동일하게 -투자 지원액	-1993년 통일: 10년간 2,120억 달러 -2000년 통일: 10년간 4,480억 달러
Noland (1996)	-CGE 분석	-북한 지역의 1인당 소득수 준이 남한의 60% 수준으로 -총투자, 현재가격	-1995년 통일: 5,000억~7,500억 달러 -2000년 통일: 2조2,000억 달러
박태규 (1997)	-항목별 소요지원액 누계 -독일의 경험을 비교	-통일 후 10년 동안 남북간 경제 격차 해소 -재정 부담	-초기 5년: 남한 GNP의 8.67~11.29% -후기 5년: 남한 GNP의 7.47%
이영선 (2002)	-CGE 분석 및 독일의 경험을 비교	-북한 지역의 1인당 소득수 준이 남한의 60% 수준으로 -공공투자 및 정부 재정 부담	-점진적 통일: 10년간 732억 달러 -급진적 통일: 10년간 5,614억 달러
RAND (2005)	-투자 · 산출 비율 산정 -시나리오 분석	-북한의 GDP를 통일 시점의 두 배로 증가 -자본 투자	-통일시 북한의 GDP가 남한의 2% 수준: 500억 달러 -통일시 북한의 GDP가 남한의 8% 수준: 6,700억 달러

<부록>

주요 경제지표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2년	7.0	7.6	11,499	7.9	6.0	6.6	7.5	5.3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7	11.4	14,193	-0.3	3.7	2.1	3.8	1.1
2005년	4.0	7.0	16,291	3.2	4.3	2.3	5.1	0.3
4/4	7.5	11.4		5.5	4.2	9.1	9.6	8.4
2003년 1/4	3.7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4	4.2		-2.0	3.5	2.7	-4.6	7.7
4/4	3.9	8.6		-2.0	3.5	4.3	-2.0	8.3
2004년 1/4	5.3	11.9		-1.3	3.7	2.4	-0.1	4.9
2/4	5.5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9	-1.1	2.4	-3.3
2005년 1/4	2.7	5.1		1.6	3.2	0.4	2.9	-2.2
2/4	3.2	5.0		3.0	4.2	2.0	2.7	1.6
3/4	4.5	7.4		4.0	5.1	1.9	4.3	0.3
4/4	5.3	10.2		4.2	4.8	4.2	10.2	0.9
2006년 1/4	6.1	9.9		4.8	5.3	3.9	6.9	1.2
2/4	5.3	9.3		4.4	5.2	0.8	7.4	-3.9
3/4	4.6	8.6		3.9	5.6	3.2	9.6	-1.3

무역 ·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¹⁾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2년	1,624.7	8.0	1,521.3	7.8	147.8	53.9	1,214.1	1,200.4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34.7	165.6	2103.9	1,011.6
2004년 12월	232.0	17.6	209.7	19.0	29.4	22.1	1,990.7	1,035.1
2005년 1월	224.5	18.3	194.5	20.0	44.9	38.8	1,997.0	1,026.4
2월	204.0	6.6	184.0	5.3	15.9	9.5	2,021.6	1,008.1
3월	239.5	13.1	227.8	19.1	30.7	10.5	2,054.4	1,024.3
4월	228.7	6.5	212.4	12.8	23.3	-9.9	2,063.8	1,001.8
5월	231.2	11.0	211.6	18.3	26.1	13.6	2,061.0	1,002.5
6월	237.1	9.5	212.9	14.8	3.7	22.4	2,049.9	1,024.4
7월	232.4	10.6	215.1	17.0	31.7	14.5	2,056.9	1,025.7
8월	233.4	17.9	220.0	21.4	15.9	-4.9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8.3	16.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1.1	26.9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8	22.0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8.1	5.4	2,103.9	1,013.0
2006년 1월	232.6	3.6	230.3	18.0	14.8	1.0	2,169.3	972.0
2월	237.9	16.6	234.6	27.5	8.3	-7.8	2,159.5	969.0
3월	268.5	12.1	257.8	13.2	2.91	-4.3	2,173.4	975.5
4월	256.0	11.9	243.3	14.5	18.8	-16.1	2,228.9	945.7
5월	279.2	20.7	260.7	23.2	28.2	13.6	2,246.9	947.4
6월	279.6	17.9	259.7	22.0	27.2	9.4	2,243.6	960.3
7월	258.6	11.4	254.6	18.4	16.2	-3.9	2,257.2	953.1
8월	274.6	17.6	270.6	23.0	14.4	-6.4	2,270.2	959.6
9월	299.3	22.1	279.0	22.8	32.4	13.7	2,282.2	945.2
10월	280.9	10.8	257.0	13.5			2,294.6	945.1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9	757.0
2003년	2.2(3.1)	3.6(3.4)	3.4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5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7)	2.7(2.6)	3.7	8.1	6.9	7.0	4.69	1,073.6
12월	5.3(5.3)	3.0(3.0)	3.7(3.5)	22.7	5.9	6.9	3.73	873.1
2005년 1월	4.1(0.2)	3.1(0.7)	4.2(3.8)	-4.7	6.3	7.0	4.11	903.4
2월	3.2(0.6)	3.3(1.3)	4.3(3.7)	27.7	6.4	6.8	4.63	964.5
3월	2.7(1.0)	3.1(2.1)	4.1(3.6)	8.5	6.6	6.4	4.48	988.2
4월	2.9(1.7)	3.1(2.2)	3.8(3.7)	11.7	7.0	6.6	4.28	955.4
5월	2.0(1.1)	3.1(2.0)	3.5(3.7)	7.4	7.0	6.6	4.12	939.0
6월	1.6(0.6)	2.7(1.6)	3.6(3.8)	11.0	7.4	7.1	4.18	991.3
7월	2.0(1.4)	2.5(2.1)	3.7(3.8)	6.6	7.9	7.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7	7.7	7.6	4.75	1,101.8
9월	1.6(2.2)	2.7(3.1)	3.6(4.0)	5.8	6.5	6.9	4.92	1,171.0
10월	1.7(2.4)	2.5(2.9)	3.6(3.9)	10.3	6.5	6.9	5.20	1,190.9
11월	1.1(1.8)	2.4(2.3)	3.3(3.5)	7.6	6.6	7.2	5.50	1,253.3
12월	1.7(1.7)	2.6(2.6)	3.5(3.5)	0.9	7.0	7.3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8(0.8)	3.7(3.4)	24.1	7.3	7.2	5.50	1,379.3
2월	1.7(0.6)	2.3(1.0)	4.1(3.5)	-11.8	7.2	7.4	5.33	1,341.7
3월	1.4(0.6)	2.0(1.5)	3.9(3.5)	5.7	6.6	7.0	5.30	1,331.7
4월	1.5(1.5)	2.0(1.6)	3.5(3.5)	4.1	6.8	7.4	5.24	1,415.9
5월	2.6(2.1)	2.4(1.8)	3.2(3.4)	8.1	7.1	7.6	5.05	1,388.8
6월	3.2(2.1)	2.6(1.6)	3.4(3.5)	3.4	7.7	7.3	5.17	1,249.2
7월	2.8(2.5)	2.3(1.8)	3.4(3.5)	5.9	7.7	7.3	5.18	1,278.6
8월	3.4(3.4)	2.9(2.7)	3.4(3.5)		7.5	7.4	5.10	1,316.0
9월	3.1(3.6)	2.4(3.0)	3.2(3.5)		9.1	7.9	5.02	1,356.5
10월	1.9(2.6)	2.1(2.5)	3.3(3.5)					1,354.0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1년	0.7	75.3	6.7	2.6	-1.0	-9.1	22.1	10.0	4.4	14.6
2002년	8.0	78.4	8.3	8.3	21.0	8.4	33.0	11.2	-8.1	24.5
2003년	5.0	78.3	-1.1	-34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5	80.4	-0.6	-1.4	6.8	1.4	-3.9	11.1	5.3	14.4
2005년	6.3	79.8	2.6	2.1	1.5	3.4	9.5	5.7	-0.7	9.8
12월	4.6	79.7	-0.0	-6.2	-9.9	-1.8	39.9	-0.2	-10.3	5.7
2005년 1월	14.6	81.9	-2.8	0.9	0.7	15.50	9.1	3.6	-0.8	5.4
2월	-7.2	77.2	-1.4	-11.4	-18.7	-3.7	-20.6	-3.3	-1.0	-4.2
3월	4.8	80.9	1.6	-3.4	-3.2	1.9	71.6	4.7	-1.2	7.3
4월	3.6	78.8	1.7	-3.7	-10.0	0.3	25.8	7.8	-1.2	12.3
5월	3.9	78.0	4.2	1.4	-14.5	8.4	51.7	10.5	4.5	13.7
6월	4.0	80.1	3.1	3.8	-12.2	-3.7	37.1	10.6	6.0	12.8
7월	6.8	80.5	3.3	4.1	26.2	4.3	6.3	4.5	-1.6	7.1
8월	6.6	78.6	5.3	6.3	18.3	-0.3	18.3	5.0	-10.0	10.7
9월	7.6	79.0	3.5	4.8	0.1	-1.6	27.8	4.3	-7.7	7.9
10월	7.7	79.3	2.3	4.9	0.7	1.6	-35.3	2.6	-3.3	5.3
11월	11.8	82.1	5.7	8.1	11.7	6.6	3.6	3.0	-2.4	7.5
12월	11.3	79.4	5.4	8.7	42.8	12.6	-17.0	11.3	5.2	5.5
2006년 1월	6.9	83.5	4.1	2.8	2.0	0.1	10.9	2.5	-10.3	8.5
2월	20.6	80.9	2.8	12.3	38.7	2.4	22.2	9.2	-12.8	18.2
3월	10.0	81.5	4.0	5.5	-0.1	9.6	-34.5	5.9	-7.5	11.8
4월	9.9	79.0	3.8	4.2	15.3	7.1	-18.8	2.0	-4.6	5.2
5월	12.1	80.6	4.5	6.4	12.6	2.5	-17.9	1.0	-3.2	2.7
6월	10.9	82.0	3.9	5.0	34.8	3.0	-7.7	1.1	-4.3	3.7
7월	4.5	76.8	0.4	-2.2	-2.7	4.1	7.3	-0.7	-0.2	0.1
8월	10.8	80.7	3.9	2.7	15.2	11.0	14.9	3.4	9.1	2.5
9월	16.3	84.1	7.8	14.0	34.7	14.7	94.1	15.7	19.1	14.1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6년 10월 25일

1판1쇄 발행/2006년 10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